

석사학위논문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교육에 대한 의식 연구
- 제주도내 초·중등교사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오 성 민

2004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교육에 대한 의식 연구

- 제주도내 초·중등교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허 정 훈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오 성 민

오성민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교육에 대한 의식 연구
- 제주도내 초·중등교사를 중심으로 -

오 성 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허 정 훈

국가적 차원의 정책인 동시에 제주도민의 미래가 담보된 대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프로젝트는 이미 시행 두 해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되면서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변화는 필연이 되었고, 특히 교육적 대치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을 담보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주인 각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근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제주를 잃지 않으면서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는 제주 교육을 짚어지고 있는 제주도내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일반 사항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적 쟁점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관심 및 교육적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내 초·중등교사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활성화의 기대로 찬성하기도 하지만, 전통문화의 파괴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유망 산업분야는 관광·휴양 산업으로 보며, 청정자연 환경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장차 제주도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 교육, 정체성 교육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섯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의 기본적 입장은 반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계층간의 위화감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일곱째,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자격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신의 자녀의 입학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반반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교원 연수 기회 확대 등 제주도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 본 논문은 2004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범위	6
II. 이론적 배경	9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전망	9
1) 추진 배경	9
2) 중점 과제와 전망	12
3)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교육의 역할	21
2. 「특별법」의 교육부문과 논쟁점	24
1) 「특별법」의 교육부문 조항	25
2) 「특별법」의 교육부문 논쟁점	27
3. 제주 교육의 과제	34
1) 내부적 측면	36
2) 외부적 측면	38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41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반에 대한 의식	41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부문에 대한 의식	61
IV. 결론 : 요약 및 제언	102
참 고 문 헌	106
Summary	109
부 록	111

표 목 차

<표-1> 조사 대상자 분포	5
<표-2> 연구의 내용 범위	7
<표-3>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지표	13
<표-4> 제주의 SWOT 분석	14
<표-5> 싱가포르·홍콩·우리 나라의 교육부문 경쟁력	21
<표-6>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인지도	42
<표-7>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 알게된 경로나 계기	45
<표-8>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찬·반 입장	48
<표-9>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찬성하는 이유	50
<표-1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	53
<표-11>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산업 분야	56
<표-1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교 우위 요소	58
<표-1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61
<표-14>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 이후의 제주도민의 전반적 사회·경제적 지위 예측	64
<표-15> 교육 현황과 문제점	67
<표-16> 해결 전략과 제안 방향	67
<표-17>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내용 영역	70
<표-18>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입장	72

<표-19>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부정적 영향.....	75
<표-2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긍정적 영향.....	78
<표-2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폐지 에 대한 찬·반 입장	81
<표-22>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 시, 자신의 자녀의 입학 허용 여부	85
<표-22~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 시, 자신의 자녀의 입학 허용 이유	86
<표-22~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 시, 자신의 자녀의 입학 불허 이유	88
<표-2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가르쳤던 내용 영역	90
<표-24>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내용 영역.....	94
<표-25>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	97
<표-26>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	10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제화와 세계화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된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 자국 문화의 보존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의식, 지구 공동체 의식, 세계인의 평화, 번영,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을 위주로 명맥을 유지하던 제주는 존망성쇠의 기로에 처하게 되었으며, 특히 WTO의 출범과 IMF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 새로운 경제 특구의 등장 등은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변화와 개혁을 피하지 않고는 발전과 번영은 고사하고 생존 명맥 자체가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제자유도시는 현재 제주사회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를 살아야 할 사람들의 미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성급하게 그 열매를 따려해선 안 되며, 우리가 할 일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진정 제주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로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전제 아래 제주의 교육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적 기반이라고 하겠다.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몇 가지의 법률과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육적 과제는, 변화의 수용에 강한 문화를 보급하는 교육적 노력과 이에 병행하여 당면한 변화의 추이에 걸맞는 사고와 태도와 역량 등을 신장시키는 내용의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가 국제화되면 교육체계도 이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이 국제화하기 위한 접근 방향을 국제적 활동 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 민족 정체성 중심의 교육, 자아실현 중심의 교육으로 보는 이도 있다.¹⁾

인간을 변화시켜 보다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과 접근은 국가 정책적 차원, 교육학자의 입장,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초, 중등학교의 교사들의 관점과 시각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조항 중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하여 일부 시민 단체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양론이 일고 있으며, 그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 내지 개정되는가 하는 것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선전하는 이 사업 전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많은 제약과 난관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되지 못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더군다나 가

1) 송상순(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 학교교육의 과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청류」, 제20호, p.25.

장 근본적 변화의 원동력이지만 그 가시적 성과가 더디고 직접적 확인이 어려운 교육 관련 영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제도는 정치가 만든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제도 그 자체가 완벽하게 짜여져야 하기도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역할 수행 능력과 의식,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육이라는 장기적인 사업을 통하여 길러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되면서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변화는 필연이 되었고 특히 교육적 대처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을 담보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주인 각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근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제주를 잃지 않으면서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제주 교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좌표와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제주도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제적 대가는 충분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영역에서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사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²⁾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배경 자체가 생존과 경제의 문제

2) 박철홍(2003), “세계시민교육의 쟁점과 발전 방향”,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제주국제협의회 외 공편, p.50.

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보니, 교육, 환경, 인권, 정체성 등의 문제는 자칫 소홀히 다루어 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도 교사들의 가치관이나 의식, 태도와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인 동시에 제주도민의 미래가 담보된 대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제주도내 일선 초·중등 학교의 교사들이 이에 대한 이해 정도와 관심도, 특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육 관련 조항과 이에 대한 입장,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교육적 과제와 대응 전략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추진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조그마한 보탬이나마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추구하는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현안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반에 대하여 초·중등 교육의 주체인 일선교사들의 관심과 이해 수준, 인지도를 조사 분석한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법규상의 교육 관련 쟁점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이에 대한 찬반의 기본적 입장을 조사 분석하여 그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교육적 과제와 역할에 대한 각 교육 주체들의 인식 실태와 대응 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내용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 표본수는 전체 640명이며 신뢰도는 $\pm 5\%$ 범위이다. 설문지는 미회수, 불성실 답변자 발생을 고려하여 유효표본 수보다 각 110매 많은 750명에게 배부·조사하였다. 통계의 처리방법은 각 응답자들의 배경에 따라 각기 제시된 의견을 SPSS 7.5 팩키지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분석하였다.(<표-1> 참조)

둘째,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야 가시화 되고 있는 분야로서 아직 선행 연구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문 주제별로 연구된 관계 및 학계 연구물과 그 밖의 관련 있는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각종 단체 주관의 세미나 자료 및 유관기관 통계자료들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시사성 있는 언론 보도 내용도 반영하였다.

<표-1> 조사 대상자 분포

구	분	빈 도(%)
성별	남	296(46.3)
	여	344(53.8)
연령별	20대	111(17.3)
	30대	121(18.9)
	40대	317(49.5)
	50대 이상	91(14.2)

구 분		빈 도(%)
학교급별	초등학교	175(27.3)
	중학교	126(19.7)
	고등학교	339(53.0)
전공과목별	국어	76(16.2)
	영어	74(15.8)
	수학	61(13.0)
	과학	45(9.6)
	사회	65(13.9)
	예체능	34(7.2)
	실업가정	114(24.3)
해외여행 빈도별	4회 이상	77(12.0)
	3회	72(11.3)
	2회	102(15.9)
	1회	168(26.3)
	없음	221(34.5)
외국어구사능력별	능숙	31(4.8)
	의사소통가능	128(20.0)
	미숙	401(62.7)
	불능	80(12.5)
합 계		640(100.0)

둘째,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야 가시화 되고 있는 분야로서 아직 선행 연구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문 주제별로 연구된 관계 및 학계 연구물과 그 밖의 관련 있는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각종 단체 주관의 세미나 자료 및 유관기관 통계자료들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시사성 있는 언론 보도 내용도 반영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화의 지도부라면, 교육은 국제자유도시화의 지원사령부이다. 국제자유도시화에 필요한 역군을 길러내고, 지식을 공급하고, 무기를 대주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듯이, 제주도민을 국제자유도시의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또한 그 기초 교육의 주체요, 당사자가 바로 초·중등 교사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무한경쟁의 21세기의 제주인의 조건으로, ‘폭넓은 교양인,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제주인, 예의를 갖춘 제주인, 인정이 넘치는 제주인, 친절·질서·청결의 제주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³⁾ 새로운 전자시대는 지식·기술 혁명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온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인 것은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내 초·중등 교사들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의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조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의 범위는 제주도지역, 서귀포지역, 북제주군 지역, 남제주군 지역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지역적 분포 및 계열별로 특수성을 감안하여 골고루 분포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내용의 범위로서 국제자유도시의 일반에 대한 의식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부문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2> 참조).

<표-2> 연구의 내용 범위

영역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반에 대한 의식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인지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알게된 경로나 계기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찬·반 입장과 이유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산업 분야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교우위 요소
	◎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 이후의 제주도민의 전반적 사회·경제적 지위 예측

3) 제주국제협의회 외(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오름, pp.138~139.

영역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교육시장 개방되었을 때의 부정적 영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부정적 영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긍정적 영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 시, 자신의 자녀의 입학 허용 여부와 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가르쳤던 내용 영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영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기에 적합한 시간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거나 앞으로 변경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둘째로 조사분석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역할과 과제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려는 연구 취지에서 교육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교육 분야 선행 연구가 다소 부족하여 이론적 근거 제시에 미흡한 점이 있어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전망

1) 추진 배경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1장 총칙 제 2조 제 1항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여,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당면한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그 동안 제주 발전의 원동력의 하나였던 관광산업은 동남아 관광지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나 영어 사용, 관광위락 시설 부족, 가격 경쟁력 열세 등 여러 요인으로 국제관광지로서의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주는 소규모의 시장구조, 접근비 증가에 따른 물류비 상승,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치우친 취약한 산업구조로 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새로운 발전 전략 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라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완화·철폐되는 등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다국적 기업 등 국제자본은 최적의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중이고, 기존의 홍콩과 싱가포르도 새로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요한 추진 배경은 최근의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⁴⁾

첫째, 국제적 여건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Global)화된 세계경제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점차 감소되고 노동, 상품,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 산업의 중심적 영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 일본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장기 불황 속에 있으며 중국은 WTO 가입 등 적극적으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도모하고 있다.
- UN 해양협약의 발효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도입되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국가간 교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둘째, 국내적 여건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에서 지방분권적 구조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 IMF 관리체제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개발과 외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남북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긴 하지만 교류가 확대될 경우, 북한의 개방은 제주관광에 부분적이거나

4) 제주도(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pp.11~1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경기대회는 한국의 국가적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가 점차 민간부문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경영마인드와 고객 지향적 행정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제주도의 여건 변화는 내부 여건과 외부 여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동 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공포한다.

○ 2001년 6.15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고위급 회담,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 추진 등 제주도가 남북교류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주도는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1998년부터 4개 시·군이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여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 1998년 4월부터 중국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중추관리부문, 국제교류·협력부문, 국제행정·외교부문, 지역기업의 국제화부문, 국제 물류·유통부문, 국제 문화관광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교류·협력기능 강화가 과제이다.

○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학자, 외교관, 언론인, 경제인들이 참가한 “제주평화포럼” 개최와 4·3의 인도주의적 해결 추진 등 평화의 섬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평화 관련 기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 세계경제권의 블록화 추세와 남북통일을 고려하여 동북아경제권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이업종 공동연구, 신소재 개발, 정보통신산업 및 창업보육(TBI), S/W 응용 개발, 자원 활용 및 에너지 개발, 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중점 과제와 전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도 전체를 21세기 동아시아의 관광·물류·금융의 중심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02년 4월 동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화되면 제주도는 21세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발전의 진진기지가자 평화의 섬으로 세계 평화는 물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을 보면 국제화에 따른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자율권 확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중심 주체인 제주도에서 제시하는 「종합계획」에서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복지를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여,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건설을 그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지표

2011년 모습		
· 총 인구수 62만명	· 1인당 GRDP 2,205만 1천원	· 실업률 2.0%
· 관광객수 992만 9천명	· 교원당 학생수 17.08명	· 의료인력 4,907명
· 발전량 396만 1000Mwh	· 주택보급률 103%	· 도로포장 87%



JEJU 2011

**인간 · 환경 · 지식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교류도시	문화관광도시	지식기반도시	청정산업도시	인간존중도시	녹색정주도시	환경생태도시
세계로 열리고, 평화에 공헌하는 국제자유 도시제주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 관광휴양 도시제주	정보, 지식, 자원과 기술이 융화된 역동적인 제주	산업이 번영하고 풍요를 구가하는 활기찬 제주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보람찬 제주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안락한 제주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쾌적한 제주



현재의 모습(2000년)

· 총 인구수 54만 3천명	· 1인당 GRDP 892만 6천원	· 실업률 2.5%
· 관광객수 411만명	· 교원당 학생수 21.21명	· 의료인력 2,557명
· 발전량 190만 240Mwh	· 주택보급률 97.1%	· 도로포장 82%

* 자료: 제주도(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러한 목표와 중점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제시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강점의 극대화, 약점의 극복, 기회의 활용 및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발전 잠재력<SWOT>을 <표-4>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표-4> 제주의 SWOT 분석

구 분	주 요 내 용
강 점 (Strength)	· 지정학적 동북아지역의 중심지
	· 도서지역으로서 차별화된 법령 적용 가능성
	· 뛰어난 자연환경과 양호한 기후 조건
	· 환경 친화적인 양질의 1차 산업
	· 낮은 범죄율과 안전한 생활환경
	· 국제공항과 수심 깊은 항구 보유
	·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 입지
	· 광범위한 편의시설과 관광산업 기반시설 확보
약 점 (Weakness)	· 도로 및 전력·통신 기반시설 확보
	· 지리적 고립성과 높은 물류비용
	· 중산간지역 개발의 한계
	· 인구 규모의 한계와 제조업 수요의 부족
	· 체류형 관광상품 자원의 부족
	· 지역경제 규모의 영세성
	·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과 고급인력의 역외유출
	· SOC의 한계
기 회 (Opportunity)	· 전국수준보다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과 외국인 투자유인책 부족
	·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도서지역의 입지적 한계 극복
	· 중국의 해외여행자유 확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예상
위 험 (Threat)	· 남북교류의 확대와 교차관광 특수기대,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 월드컵축구경기대회 개최와 국제적 지명도 제고
	· IMF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와 지역 생산활동의 위축
	· 중국의 WTO 가입과 감귤산업의 불투명한 미래
	· 동북아 여타 지역의 유사한 개발계획
	·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경쟁 심화
·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관광지역과의 경쟁	
· 남북교류의 확대로 관광수요 감소 가능성	

* 자료: 제주도(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새롭게 변화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⁵⁾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화되면 제주도는 21세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평화의 섬으로 세계 평화는 물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21세기의 역동적인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본다.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 탐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와 전통 등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제화 시대에 개방 및 투자 유치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⁶⁾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는 경우 산업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⁷⁾ 우선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2차 산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그 비중이 점차 증가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관광산업, 금융 및 무역부문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그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째, 21C의 제주는 아시아·태평양의 고도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 및 비즈니스중심지로 급속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는 아시아·태평양의 성장·발전과 함께 점차 정착되어갈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 환태평양경제권 등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권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이들 지역의 역내

5) 김부찬(1999),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범·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 제 3호, p.110.

6) 고부언(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배경과 전망”,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 제 115호, p.14

7) 김태보(1999),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지역 경제”,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제 5호, pp.68~70.

관광 및 비즈니스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C를 맞으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태평양시대가 전개될 전망인데,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이 태평양권으로 옮겨짐에 따라 태평양권내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관광기구(WTO)의 전망에 의하면, 21C 태평양권 관광산업의 도약이 전망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상용 및 관광목적의 태평양권내 여행이 활발해지고 있고, 둘째로 태평양지역이 항공노선이 빠른 속도로 증설, 증편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항공회사들이 태평양 횡단 항공노선에 진출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의 항공노선이 빠른 속도로 증설·증편되어 아시아·태평양각국을 행선지로 하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셋째, 세계적인 대형호텔들이 태평양 지역의 주요도시 및 관광지에 잇달아 체인호텔들을 건설하고 있으며, 넷째로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른 중국여행 붐이 태평양권이 관광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30년 동안이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던 중국이 최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유치활동을 적극 화함에 따라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태평양권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섯째, 태평양 지역경제협의회(PBEC)등 국제기구에 의한 태평양권내 관광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노력이 관광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컨대,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시설, 사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등을 갖추으로써 외국의 자본, 첨단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람, 재화, 자본,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외창구지역이 되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둘째, 21C의 제주경제는 지역산업의 첨단화, 기술고도화 그리고 정보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경우 제주경제의 개방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람과 물자, 그

리고 정보의 교류가 기술혁신의 물결을 타고 더욱 대량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경쟁이 뒤따르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선점 효과를 살린 차별화 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을 선택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⁸⁾

한편, 이러한 낙관적 견해와는 달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비판적 회의론도 없지 않다.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적 논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장기 불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주의권에 대해서 강경한 말살 정책을 실현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요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며,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며, 국가의 공공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영국에서 시발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선진 국가로 확대되어 나가고, 세계화의 논리로 무장되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하여 강력한 이익 추구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도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사에 있기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적 특징은⁹⁾ 투기성 국제 금융자본의 독재체제, 자본의 무한 착취의 자유 보장, 공공성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후퇴(민영화), 무차별적 경제 침략과 세계적 범위에서 빈부 격차의 극대화(개방화), 산업화를 위한 농업분야의 몰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자체가 제주도의 장기 발전 방향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제주도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¹⁰⁾ 그 대표적 주장은 첫째, 제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

8) 박철수(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제주도교육청, 앞의 책, pp.19~20.

9) 정대연(200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 약탈성과 침략성",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민토론회 자료, pp.12~17

때 타당성 및 실천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로 국제자유도시상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방식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개발 행태나 사례로 볼 때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불가피한데 이를 눈가림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셋째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복지증대 등 구체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국제자유도시가 되어 외국상품과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하면 제주 토착기업은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외국노동자의 유입으로 도민의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은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 당국의 구상대로 정착화 된다면 제주도는 세계 문화의 각축장이 될 것이며,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마구 유입되는 세계 각국의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와의 충돌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과 이에 따른 문화정체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국제주의란 허울좋은 이름은 문화제국주의로 탈바꿈되어 서구 강대국이 약소국의 개인적, 민족적 연대와 공동체를 유린하고 정체성을 파괴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어, 그나마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가치와 전통문화를 급속히 와해시키고 도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해치는 정서적 환경의 혼탁을 경고하고 있다. 결국 제주인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보전하면서 제주형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구상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뜬구름 잡는 식의 형용의 모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정체성, 전통문화, 청정환경의 보전과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결국 제주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건강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선 주체를 먼저 세우고 반성적, 자각적인 삶을 통해 주체의 미적 기준에 따라 외래문화를 여과해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¹¹⁾

10) 강철준(1999), “21세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제적 의의와 추진방향”,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연구논총」, pp.75~76.

11) 김현돈(1999), “국제자유도시와 문화”,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제5호, pp.57~66.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제주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과거 중앙정부와 외지 자본가에 의한 국내의 외생적 개발에서 초국가적 자본에 의한 개발인 국제자유도시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와 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전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는 입장도 있다.¹²⁾ 이에 따르면, 애초에 예상되는 고용증대나 세수증대의 효과가 하와이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리 크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지역 통제력의 약화, 외부인에 의해 지방 정치가 통제 당할 우려가 있고, 자연환경의 급속한 파괴, 일차산업의 침체와 몰락, 지역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위상과 정체성의 급락, 기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퇴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궁극적으로 세계화의 일환인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범세계적 확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 추구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의 논리를 통하여 또 다른 불평등과 구시대적인 종속의 고리를 강화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세계화는 '환상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개념이 20:80 모형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잘사는 20%의 나라와 못 사는 80%의 나라로 계층구조화 되어 갈 것이고 한 국가 내에도 국민의 20:80 모형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이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에 대한 직접투자나 기술제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외부자본의 참여는 제주도로 하여금 종속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개방으로 인한 종속이 우려된다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개방을 연기하거나 아예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를 최선의 정책으

12) 양영철(1999),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제 5호, pp.103~108.

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과 세계화는 그것이 옳고 그름과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하나의 현상이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서 제주개발 정책이 선택해야하는 대안은 자명해진다. 그것은 개방이 세심하고 주의 깊은 정책에 의해 생존을 보장하면서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발정책의 방향성은 지방화, 즉 지역 아이덴티티에 근거해야 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위한 지방정부의 개발에 대한 통제권 확보, 경제적 아이덴티티를 위한 주민주체개발의 확립과 지역 산업의 육성, 사회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위한 지역 역사·문화 찾기와 지역정신의 정립, 환경적 아이덴티티를 위한 자연 그대로의 원형 보전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¹³⁾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주장들 중에는 그 추진 과정과 내용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한다.¹⁴⁾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의 개발 철학이 불분명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추진되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조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너무나 빈약하여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기에 주어진 여건과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선이 좌절에서 오는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로서의 차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넷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과 추진은 지역의 생존을 위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만 그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3) 송재호(1997), “국제관광과 섬: 변화와 아이덴티티”,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4집,
14) ——— (2001),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민 생존전략으로 타당한가“, 제주국제자유도시도민
토론회 자료, pp.28~30,

3)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교육의 역할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중언어 구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화 능력이 뛰어난 인적자본과 개방도·자유도·경쟁력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지닌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어 교육이 근간을 이룬 국제화 능력 함양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며, 국제화 능력이 제고된 인적자원 육성은 바로 제주교육의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소위 '역사의 변방'이었던 싱가포르와 홍콩이 오늘날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든 요인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오늘날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은 홍콩·싱가포르 두 지역이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중언어 구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화 능력이 뛰어난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개방도·자유도·경쟁력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지닌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¹⁵⁾

싱가포르·홍콩 등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들의 교육현황에 대해 『IMD 2002 국가경쟁력 연감』의 교육부문에 대한 경쟁력평가를 중심으로 개괄하면 <표-5>와 같다.

<표-5> 싱가포르·홍콩·우리 나라의 교육부문 경쟁력

비교 항목	싱가포르	홍콩	한국	1위 국가
교육부문 공공지출 (GDP 대비 %)	4.0	4.1	3.7 (42위)	덴마크 8.3
교사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名)	25.0	22.4	32.2 (43위)	덴마크 10.60
교사1인당 학생수 (중등학교, 名)	19.0	18.9	22.2 (42위)	이스라엘 7.9
중등학교 진학률(%)	93.0	84.6	100(공동1위)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등
고등교육 수험자 (25~34세인구 중 전문대이상 인구비, %)	36.4	30.3	35 (6위)	캐나다 47

* 자료 : 『IMD 2002 국가경쟁력 연감』

15) 김미정(2002), “외국 국제자유도시(싱가포르·홍콩)의 교육 실태”, 제주도교육청, 앞의 책, pp.23.

위 표를 통해 볼 때, 싱가포르, 홍콩, 우리 나라는 공통적으로 교육부문 공공지출, 교사1인당 학생수 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반면, 우리 나라는 중등학교 진학률 100%로 세계 공동 1위이며, 고등교육수학자 비중과 15세 학생들의 PISA측정에서 상위의 경쟁력을 나타낸다. 싱가포르의 경우 교육제도, 대학교육의 내용, 국민들의 경제적 교양도, 고급엔지니어 및 지식이전도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홍콩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우리 나라의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률과 같은 양적인 지수와 중등교육 단계의 이론적·기초적 과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홍콩은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높은 경쟁력과 교육의 내용 또한 경쟁적 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방향으로 접근된 특징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국제자유도시는 국경 없는 경쟁적인 경제환경 자체가 곧 생활환경인 점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홍콩의 교육 제도와 내용 및 결과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 정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중계무역에 의존하였던 산업구조를 제조업 부문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한 다국적기업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국제화전략을 투자자유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였다. 즉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제도와 대외 진출이 자국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에 경제운용정책의 구체화에 노력하였는데, 무역자유화는 성장전략일 뿐만 아니라 생존에 불가결한 방안이 된다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였다.¹⁶⁾ 싱가포르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와 촉진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바로 교육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투자자유지역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으로부터 영입되는 우수 전문인력

16) 박상수(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교육의 이슈”, 제주도교육청, 앞의 책, p.32

을 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즉 대학 및 직업교육기관의 확대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초·중등학교에서 영어의 공식행정어 사용을 위한 영어교육, 그리고 자동화, 컴퓨터화에 대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비한 직업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려놓았다.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WEF)의 96년 경제보고서는 싱가포르가 금융/무역의 중심지, 다국적 기업활동을 위한 지역본부중심지 역할, 국내성장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로 평가하면서 국가경쟁력 수준을 1위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국가의 유·무형의 기반여건이 1위로 평가될 만큼 교육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는 교육부문 역할이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홍콩의 경제를 지탱해온 부문 중의 하나인 금융을 중심으로 홍콩은 국제금융센터로서 성장하여 왔다. 홍콩은 기존의 중계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기반으로, 중국과 동남아 자금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화교들의 자금 조달지 및 예금 위탁지로서의 중심지 기능, 정보와 통신 그리고 항공교통 등 인프라 여건, 규제완화 등이 축적되어 있었던 관계로 오늘날 홍콩이 국제금융 자유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홍콩정부는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등 소위 사회 공공서비스 분야에 약 45%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 정부가 국제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함께, 영어에 능통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재가 풍부하며, 법무 및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많고 외국인이 주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홍콩은 아시아 최고의 국제금융센터 지역을 조성하여 지금도 많은 고급 인력과 전문직업 인력을 양성하여 현지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홍콩이 싱가포르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계(新界)지역에 위치

하게 되는 홍콩과학공원(Hongkong Science Park)인데, 여기에는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통해 홍콩의 산업기술개발과 기술혁신, 디자인 등 기술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곳에도 물론 외국인 및 지역주민 거주시설을 위한 인프라와 교육시설,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전시관 등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의 오늘날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오늘의 홍콩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차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경쟁 상대인 아시아권의 선진 국제자유도시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은 교육이라 하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향은 외국어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화능력이 함양된 인력자원 육성과 개방적·국제적·경쟁력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주도민의 의식수준, 생활약식이나 행동과 태도까지도 세계화가 되어진 상태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교육부문에 대하여 도내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내 초·중등 교사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법」의 교육부문 관련 조항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여러 논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주 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 하겠다.

2. 「특별법」의 교육부문과 논쟁점

1) 「특별법」의 교육부문 조항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도하 라운드가 시작됐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뉴 라운드 또는 도하 라운드(Doha Round)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시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시대로 전환하는 준비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사실은, GATT 시대에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일반 상품만이 관리 대상이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 분야도 개방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을 서비스분야의 하나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즉 교육이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자유 교역 품목으로 규정됨으로써, 개별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교육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 국가별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던 시대가 끝나고 개방적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의 교육과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금융, 통신, 관광, 의료, 법률, 영화, 교육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특례 규정이 마련되게 되었다.

「특별법」에 제시된 교육관련 내용은 ‘제 6장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에서 제 21조부터 제25조까지 5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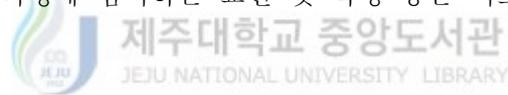
제21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동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제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

제23조(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도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를 국제화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부문에 두고 있는 특례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거주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였다.(「특별법」 제21조, 「시행령」 제20조)

둘째,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고 법인설립 시 일정 재산을 출연하여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에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의 경우는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특례를 두는 제도를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특별법」 제22조, 부칙 제5조)

셋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외국인을 1년 단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간제 교원은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이 있고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하며 정원 외로 임용토록 하고 있다(「특별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령」 제22조)

넷째, 초·중등 자율학교(교감 이상의 자격·학년도·학년제·국정교과서의 사용·학교운영위원회운영 등 자율학교)의 경우 제주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별법」 제24조, 「시행령」 제23조)다섯째,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별법」 제25조, 「시행령」 제24조)

이러한 교육특례가 특별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첫째, 국제자유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실시, 둘째로는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의 유입, 셋째로는 교육규제지역을 만들어 교육의 경쟁을 높이고, 넷째는 제주지역이 국제화되는 데 따른 제주도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 교육환경으로 메리트를 주고, 마지막 다섯째로 외국으로 유학 가는 자녀들의 교육을 국내에서 소화하자는 취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특별법」의 교육부문 논쟁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맞게될 교육환경상의 변화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란 물론 불가능하다. 그 변화가 미래의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불확실하기도 하거니와, 교육상 효과를 가지는 환경을 분명하게 구획하고 그것의 변화를 ‘볼 수 있게’ 기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주가 겪게 될 교육환경의 변화를 정리하는 일은 다분히 임의적인 것이 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하여 취하여지는 법제적 조치나 국제자유도시라는 삶의 공간이 지닐 수 있는 특질 등에

비추어, 앞으로 제주도의 초·중등교육에 어떤 새로운 조건이 부과될지 추측하고
연역해보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제주 교육에 일어날 변화는 크게 두 측면에
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학교 교육을 구속하는 법제의 변화와 학교교육이 물리
적으로 거처하는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가 그것이다.

우선,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법률에서의 변화일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하여 이미 정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
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공포하였으며, 이 법률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이 법률과 시행령은 교육을 직접 언급하며 규정하는 조항들
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들만으로도 제주 교육이 처하게 될 법제적 조건은 다른
시·도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은 제주도를 지식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우선은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두고 있다. 이는 세계화·정
보화·인터넷·첨단과학 등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제 공통
어화 되어 있는 영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진 국제자유도시의 성
공요인이 원활한 언어소통에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제주 교육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이다. 제
주의 학교들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을 모국어로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취학해 올 수도 있고, 소비적이며 향락
적인 문화에 사로잡힌 학생들은 교육적인 동기를 잃고 교사들을 애태울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학교의 실제 모습을 접하면서 학교에 대한 기대를 바꾸어 가는 학
부모의 압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의 영향을 지금 모두 간파하여 열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한 것은 제주 교육이 중요한 전기를 맞게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교육적 쟁점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이고 낙관적 입장과 부정적이며 비관적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우선, 전자의 입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원대한 프로젝트로 보며, 특별법시행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한 희망의 뜻이 올려졌다고 보아,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은 제주도를 지식의 섬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외국인학교 설립과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외국 대학의 유치, 외국인 교원의 기간제 임용, 초·중등 자율학교 운영,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등 다양한 특례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선점 효과를 살린 차별화 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도의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초여건은 갖추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학교 설립 등 사교육 부문에 민자가 적극 유치되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특별히 지원하게 된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향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기반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고, 또한 다른 경제특구지역 내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다른 지역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자유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제고등학교 등 자율학교 설립·운영의 활성화, 지역 실정과 국제 경쟁력을 감안한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제도 도입,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차원의 평생학습 도시 건설도 추진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교육적 여러 쟁점에 대한 비관적 반대 입장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

17) 박철수(2002), 앞의 논문, pp.20~21.

하는 문제점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중등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의 문제에 대하여 전교조 등의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내세우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¹⁸⁾

첫째, 내국인을 중심으로 한 이름만 외국인학교인 곳의 등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외국인학교는 도내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이라는 원론적 필요에 의해서 우선 출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이윤 창출을 위한 외국인학교의 난립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어학원들이 간판만 바꿔 달고 외국인학교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으로 지금 해외로 나가는 조기유학생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도민들 중에서도 1년 2,000만원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5% 내외를 대상으로 하며 귀족학교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외국인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에 밀려 지금 현재의 학교들은 '탈락자 학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평등권은 제주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귀족 학교화 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선호 경향은 예상외로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일단, 학급당 학생수가 적음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긍정성이 쉽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입시의 시작은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도내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런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며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 내용의 문제로, 외국인학교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므로, 제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18) 전교조제주지부(2001),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 분석 자료

단지 외국어를 잘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뿐이다라는 것이다. 일정부분 제주도내의 우수한 인재를 외국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것이 과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것은 결국 사교육비의 무한한 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일 뿐이며, 그 몫은 도민들이 감당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돈이 없어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다반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특별법」 제24조의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조항은 제주도의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이 조항에 연계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는 자율학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4조는 제주도 소재 학교들이 그러한 자율학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대로 보면, 자율학교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원의 자격, 학사력, 학년제, 교과서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급별 교육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의 정책을 펼 수 있는 학교이다. 이를테면, 정규 교원자격을 갖지 않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새 학년도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교과서가 아닌 다른 자료나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초등학교 6년이나 중등학교 3년이라는 교육 기간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이다.

「특별법」 제24조와 연계된 「시행령」 제23조를 따르면, 제주도에서 자율학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지역의 경우, 학교장 의사와 교육감의 추천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제주도에서 자율학교 운영은 자치적으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

이렇다고 하여 제주도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물론 없을 것이다.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기존의 학교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이 근본적인 조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법 조항의 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조(학교운영의 특례) ①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 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4. 실업계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위 조항은 모든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의 정책 노선에 따라서는 자율학교의 획기적인 도입을 통하여 제주도의 학교교육 체제가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자율학교가 제주도에 쉽게 도입될 수 있게 되는 점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가져오는 교육상의 주요 변화는 외국인학교 설립과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제주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의 자녀들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만, 내국인의 취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주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외국인(우리 나라 국적을 지닌 이중 국적의 외국인은 제외)과 내국인(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학자격보다 완화된 것으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취학 문호를 넓히고 있다.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특별법」과 「시행령」은 매우 개방적이다. 대학을 나온(학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이면 누구든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교원 자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 후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연수’를 4주 이상 받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임용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 기간제 교원은 또한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은 계약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에서 외국인 교원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매우 쉬운 일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특별법」의 교육 분야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는 입장도 있다.¹⁹⁾ 첫째, 일반법인도 외국인 학교의 설립주체가 된다면 사학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다. 둘째, 기본적인 설비 기준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장 없는 학교 등 외국인 학교를 공교육에 포함시킬 경우 공교육이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학력인정의 폭이 대폭 확대되어 전면적인 입시 부활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이 폐지되면 외국인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의 수준이 기초적이라는 점에서도 필수적이지만 사회 구성원이 공통분모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필수적이다.²⁰⁾ 따라서 이 단계에

19) 김대유(2002), “외국인학교 개방정책, 그 실체와 오류”, 한국교육학회제주지회 외,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 pp.11~13.

20) 강태중(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초·중등교육의 재구조화”, 2002년도 제주도의회 정책세미나 토론자료

서 교육은 사회 구성원(학생)을 분리하여 수용하기보다 통합하여 수용하는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각양각색의 학생들에게 서로 부딪히며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명화된 나라라면 대체로 학생들의 장애나 성취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같은 캠퍼스 같은 교실에 함께 수용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을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통합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학생들을 특성별로 따로 묶어 수용하는 학교를 일반화하고자 한다면, 즉, 당연하게 여겨지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거스르고자 한다면, 그 정책적 선택을 정당화할 확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제주 교육의 과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되면서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변화는 필연이 되었고 특히 교육적 대처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을 담보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주인 각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근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제주를 잃지 않으면서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교육하는 일이 많은 정성과 노력과 경비와 시간을 쏟아야 할뿐만 아니라 작심하고 착수하여 기껏 하노라고 해도, 뜻대로 가시적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교육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은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불가결의 것이고 비록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가시화 되지

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학교이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그에 대응하는 교육을 적절하게 고안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학교 교육의 필수적 책무 중의 하나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이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의 의식과 행위를 일대 전환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과제로 변화의 수용에 강한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그에 병행하여 당연한 변화의 추이에 걸맞는 사고와 태도와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기도 한다.²¹⁾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의 교육, 다중적 시민성을 길러내는 교육, 세계시민교육의 강화,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에 염두를 두어 그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제주도민의 의식수준, 생활약식이나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 조건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²⁾ 첫째, 기초와 기본이 바로선 제주인을 길러 내는 것이다. 둘째, 제주도민의 정체성의 도전을 극복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인적·물적 교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넷째, 지역주민의 질서 의식과 행동양식의 선진화이다. 다섯째, 초·중등교육에서 지혜로운 경제생활과 관련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21세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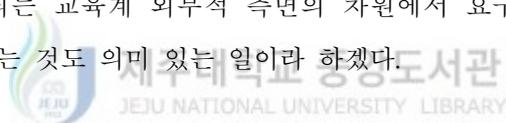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은 21세기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광, 비즈니스, 물류, 교역, 금융 등 지식 기반 산업의 복합적 전략기지로써 친환경적인 복합형 국제 자유 도시를

21) 송상순(2003), 앞의 논문, pp.25~30.

22) 허경운(2003),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웁시다」, 대영인쇄사, pp.66~67.

건설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 교육의 좌표와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경제특구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이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선진화 개편, 고용의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소득의 향상 그리고 국가의 국제화 능력 향상에 있다고 볼 때, 교육의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가장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인프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세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제주교육이 떠안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주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학생, 교사, 학부모 및 교육행정가 등 교육계 내부로부터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의 차원과 세계화, 문화적 다원화와 제주인의 정체성,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으로 요약되는 교육계 외부적 측면의 차원에서 요구를 제시²³⁾하여 제주교육의 과제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1) 내부적 측면

첫째, 교육 기회의 균형적 확대와 제주인의 양성이다. 제주의 교육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큰 성장을 가져 왔고 교육의 질 또한 제도권의 공교육 차원만을 말한다면 다른 시·도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구성원들은 교육적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한 상급학교 비진학자, 부적응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대안 교육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주 지역은 특히 원하는 만큼의 대학 진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경인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방 대학으로의 진학생이 해마다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제주의 두뇌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로

23) 강성균(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교육의 과제”, 제주도교육청, 앞의 책, pp.38~39.

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뚜렷하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비록 고향을 떠나 살더라도 자신의 뿌리를 알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고향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제주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교육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과 문화 교류의 확대이다. 제주의 물리적 교육 여건은 다른 지방에 비해 좋은 편이다.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대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교육 활동 지원 시스템, 교실 여건 등 교육의 외적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앞서 있고, 교육 방법 개선의 마인드 형성과 이에 대한 소그룹 연구 활동 등 내적인 여건도 매우 좋은 편이다.

그러나 시간이 다르게 발전하는 사회, 정보화·세계화·지식화·창조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최적의 교육 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자연조건상 그 동안 다른 문화와의 교류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만큼 외래 문화의 수용에도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문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우리다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관용의 자세까지도 함께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매체의 확보와 ICT의 활용, 교육 콘텐츠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구성원의 질과 만족도 제고이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교원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결국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교사이므로 연수든 복지든 간에 교원의 사기와 질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교원들의 교육 만족도와 교원으로서의 만족도가 곧 교육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는 교육과정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학생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 종합적인 문화 활동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내적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민주적이며 교육공동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의 확립이 요구된다.

교육은 이제 공동체적 과업임을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이들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적 특성은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2) 외부적 측면



첫째, 세계화를 위한 교육과 세계화에 대한 교육이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자질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인 육성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이다. 세계화를 위한 교육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에서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세계시민의식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국제자유도시가 가져올 부작용 또한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 다시 말해 세계화가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 세계화의 무엇이 제주도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정보화를 지향하는 교육과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넓고 깊게 정보처리능력의 발전을 강요할 것이다.

지식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이의 습득과 정보 자체가 하나의 경제력이며 상품으로 이것이 곧 재화 획득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시대에 국민 각자의 정보화 능력은 바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정보화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적 차원의 정보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소위 인터넷상의 통신 언어에 대한 문제가 점차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일부 언어 생활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이는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셋째, 문화적 다원화를 지향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간, 공간, 지역 사회, 역사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우리의 전통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제주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문화의 다원화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문화의 다원적 가치 속에서 제주도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 문화 교육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교육 내용이다. 유의할 것은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칫 경제적 요구에 의해서만, 아니면 경제적 내용에 편향된 시각으로 정체성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세계화와 이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추진은 단순히 세계 경제 체제와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편향만을 가지게 되면 원하던 원하지 않든 밖으로부터의 문화적 강요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다움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서운 교훈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다원화의 수용과 함께 진정한 우리다움을 찾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교육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째, 지식기반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지식기반 사회에 대한 교육이다. 오늘날 지식은 인간을 깨우치는 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다. 21세기를 지식경제사회라고 할만큼 지식 산업, 문화 산업이 또한 재화 획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가치롭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적 인적 자원 개발에 힘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 논리의 실용적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교육의 본질적 측면, 인간성 형성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또한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사회 환경과 체제에 들어서서 제주 사회가 앞으로 겪게 될 문명사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구축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공동체로서 제주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갈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 과제의 해결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세계화 시대에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인재, 즉 21세기적 인간형인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는 현재 제주사회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를 살아야 할 사람들의 미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성급하게 그 열매를 따려해선 안 되며, 우리가 할 일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진정 제주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로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전제 아래 제주의 학교교육은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적 기반이라고 하겠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반에 대한 인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일반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 알게된 경로나 계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찬·반 입장,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유, 추진 과정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산업분야, 외국의 다른 국제자유도시에 비교우위인 점,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선적 고려 사항, 성공 이후의 제주도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한 9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추진에 대한 인지도

제주도의 미래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달려 있다는 공감대 형성부터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초·중등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식과 의식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표-6>에서 보듯이 남녀 교사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나 학교급별 교사간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해외 여행이나 연수 경험의 횟수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chi^2 = 24.32$). 해외여행이나 연수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대강 알고 있다”는 응답이 75% 이상이나, 1-2회는 67% 이상, “모른다”의 경우는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외국어구사능력의 정도($p < .05$, $\chi^2 = 34.02$)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 80% 정도가 알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미숙하거나 불능이면 65%이하로 떨어지고 “듣는 적 있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는 해외 여행이나 연수경험이 많을수록, 외국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높음을 알 수 있다.(<표-6> 참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세히 안다”(2.2%)와 “대강 안다”(66.6%)에 비해 “듣는 적이 있다”(30.5%)와 “모른다”(0.8%)의 응답을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에 ‘판단이 안 선다’는 응답이 31.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의 2003년도 ‘제주도 주요 정책 도민 의견 조사’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초·중등교사 들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도민 일반과는 달리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6>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인지도

구분		자세히 안다	대강 안다	듣는 적 있다	모른다	합계	χ^2	df	p
성별	남	9 (3.0)	199 (67.2)	84 (28.4)	4 (1.4)	296 (100.0)	4.95	3	.176
	여	5 (1.5)	227 (66.0)	111 (32.3)	1 (.3)	344 (100.0)			

구분		자세히 안다	대강 안다	들은 적 있다	모른다	합계	χ^2	df	p
연령별	20대	1 (.9)	71 (64.0)	38 (34.2)	1 (.9)	111 (100.0)	12.46	9	.189
	30대	3 (2.5)	71 (58.7)	46 (38.0)	1 (.8)	121 (100.0)			
	40대	7 (2.2)	213 (67.2)	95 (30.0)	2 (.6)	317 (100.0)			
	50대 이상	3 (3.3)	71 (78.0)	16 (17.6)	1 (1.1)	91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2 (1.1)	112 (64.0)	61 (34.9)		175 (100.0)	6.11	6	.411
	중학교	3 (2.4)	90 (71.4)	32 (25.4)	1 (.8)	126 (100.0)			
	고등학교	9 (2.7)	224 (66.1)	102 (30.1)	4 (1.2)	339 (100.0)			
전공과 목별	국어	3 (3.9)	46 (60.5)	26 (34.2)	1 (1.3)	76 (100.0)	21.39	18	.260
	외국어	4 (5.4)	56 (75.7)	14 (18.9)		74 (100.0)			
	수학		39 (63.9)	21 (34.4)	1 (1.6)	61 (100.0)			
	과학	2 (4.4)	26 (57.8)	17 (37.8)		45 (100.0)			
	사회	2 (3.1)	44 (67.7)	19 (29.2)		65 (100.0)			
	예·체능		27 (79.4)	7 (20.6)		34 (100.0)			
	실업	1 (.9)	79 (69.3)	31 (27.2)	3 (2.6)	114 (100.0)			
해킹 의빈도	4회 이상	2 (2.6)	59 (76.6)	16 (20.8)		77 (100.0)	24.32	12	.018
	3회	4 (5.6)	54 (75.0)	14 (19.4)		72 (100.0)			
	2회	1 (1.0)	71 (69.6)	30 (29.4)		102 (100.0)			
	1회	3 (1.8)	114 (67.9)	50 (29.8)	1 (.6)	168 (100.0)			
	없음	4 (1.8)	128 (57.9)	85 (38.5)	4 (1.8)	221 (100.0)			
외국어 구사 능력별	능숙	4 (12.9)	22 (71.0)	5 (16.1)		31 (100.0)	34.02	9	.000
	의사소통가능	3 (2.3)	98 (76.6)	26 (20.3)	1 (.8)	128 (100.0)			
	미숙	7 (1.7)	262 (65.3)	129 (32.2)	3 (.7)	401 (100.0)	34.02	9	.000
	불능		44 (55.0)	35 (43.8)	1 (1.3)	80 (100.0)			
합계		14 (2.2)	426 (66.6)	195 (30.5)	5 (.8)	640 (100.0)			

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알게된 경로나 계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표 7>에서 보듯이 연령별, 학교급별, 전공과목별, 해외 여행 경험별, 외국어 구사 능력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알게된 경로나 계기가 “메스컴(신문, 방송)”이라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90.5%이고, 그 다음이 “각종 단체 홍보활동”이라는 응답이 7.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녀별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알게된 계기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chi^2 = 13.34$) 즉 남교사는 “메스컴(신문, 방송)”이 90.5%, “각종 단체 홍보활동”이 8.8% 순으로 나타나지만, 여교사인 경우는 “메스컴(신문, 방송)”이 90.6%, “각종 단체 홍보활동”이 6.2% 순이지만, “교내·외 연수”에서도 2.1%와 “동료집단”에도 1.2%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표-7> 참조)

따라서 절대 다수 대부분의 교사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신문 방송 등의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일부 소수의 교사들이 전교조나 교총 등의 각종 시민 사회 단체들의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상자를 놓고 볼 때 “교내·외 연수”를 통하여 알게된 경우는 1.1%에 그쳤고, “동료집단”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는 0.6%, 학교 비치 자료를 통하여 알게된 경우는 0.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홍보 전략과 방법 차원에서 도교육청 및 산하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교사 연수에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소개되어 교육활동의 중심 주체인 교사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 이에 관련된 각종 홍보 자료를 적극 개발하여 교내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7>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 알게된 경로나 계기

구분		매스컴	교내외 연수	학교비 치자료	각종단체 홍보활동	동료 집단	합계	χ^2	df	p
성별	남	266 (90.5)		2 (.7)	26 (8.8)		294 (100.0)	13.34	4	.010
	여	308 (90.6)	7 (2.1)		21 (6.2)	4 (1.2)	340 (100.0)			
연령	20대	104 (95.4)	1 (.9)		2 (1.8)	2 (1.8)	109 (100.0)	15.33	12	.224
	30대	107 (89.2)	3 (2.5)		9 (7.5)	1 (.8)	120 (100.0)			
	40대	279 (88.9)	3 (1.0)	2 (.6)	29 (9.2)	1 (.3)	314 (100.0)			
	50대 이상	84 (92.3)			7 (7.7)		91 (100.0)			
학 과 구 분	초등학교	159 (91.9)	3 (1.7)		10 (5.8)	1 (.6)	173 (100.0)	3.49	8	.900
	중학교	111 (88.8)	1 (.8)	1 (.8)	11 (8.8)	1 (.8)	125 (100.0)			
	고등학교	304 (90.5)	3 (.9)	1 (.3)	26 (7.7)	2 (.6)	336 (100.0)			
전 과 구 분 내 의 영 역 구 분	국어	68 (90.7)		1 (1.3)	4 (5.3)	2 (2.7)	75 (100.0)	24.72	24	.421
	외국어	65 (87.8)			8 (10.8)	1 (1.4)	74 (100.0)			
	수학	53 (86.9)			8 (13.1)		61 (100.0)			
	과학	43 (95.6)			2 (4.4)		45 (100.0)			
	사회	59 (90.8)	2 (3.1)	1 (1.5)	3 (4.6)		65 (100.0)			
	예·체능	30 (90.9)			3 (9.1)		33 (100.0)			
	실업	101 (90.2)	2 (1.8)		9 (8.0)		112 (100.0)			
회 차 구 분 내 의 영 역 구 분	4회 이상	67 (89.3)			7 (9.3)	1 (1.3)	75 (100.0)	14.95	16	.528
	3회	64 (90.1)	2 (2.8)	1 (1.4)	4 (5.6)		71 (100.0)			
	2회	98 (96.1)			4 (3.9)		102 (100.0)			
	1회	152 (91.0)	2 (1.2)		11 (6.6)	2 (1.2)	167 (100.0)			
	없음	193 (88.1)	3 (1.4)	1 (.5)	21 (9.6)	1 (.5)	219 (100.0)			

구분		매스컴	교내외 연수	학교비 치자료	각종단체 홍보활동	동료 집단	합계	χ^2	df	p
외국어 구사 능력 별	능숙	31 (100.0)					31 (100.0)	11.79	12	.463
	의사소통가능	107 (84.9)	3 (2.4)	1 (.8)	13 (10.3)	2 (1.6)	126 (100.0)			
	미숙	361 (90.9)	4 (1.0)	1 (.3)	29 (7.3)	2 (.5)	397 (100.0)			
	불능	75 (93.8)			5 (6.3)		80 (100.0)			
합계		574 (90.5)	7 (1.1)	2 (.3)	47 (7.4)	4 (.6)	634 (100.0)			

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찬·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교사들의 찬·반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인 결과를 집계해 보면, “적극 찬성” 4.3%, “찬성” 60.0%, “반대” 23.3%, “적극 반대” 11.4%, “모름” 1.1%로 찬성 비율이 64.3%이고, 반대 비율이 34.7%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8> 참조)

그러나 모든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남녀별, 학교급별, 전공과목별, 해외 여행경험 및 외국어 구사 능력별 등 모든 면에서 찬·반의 기본적 입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 보면, 남교사가 “적극 찬성”과 “찬성”에서 각각 5.4%와 67.3%를 보여 여교사의 “적극 찬성” 3.3%와 “찬성” 53.6% 보다 전체적인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18.28$).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서 반대 입장 비율이 각각 36.1%와 3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찬성 입장 비율이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26.64$).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가 각각 70.6%, 59.9%, 53.2%

순으로 찬성 입장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적극 반대” 입장도 중학교 교사들인 경우가 17.7%로 초등학교 교사 14.0%와 고등학교 교사 7.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18.91$).

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실업 교과, 외국어 교과, 수학 교과 교사들의 “적극 찬성”과 “찬성” 입장의 비율이 각각 75.3%, 74.3%, 72.1% 순으로 평균치 이상의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어, 과학, 사회, 예·체능 교과의 교사들은 전체 평균치 이하의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학 교과 교사들의 “적극 반대”의 입장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50.99$).

그리고 해외 여행 경험 유무와 빈도에 따라서도 찬성과 반대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해외 여행 경험의 빈도가 많을수록 찬성 입장의 비율이 높으며, 해외 여행 경험이 전무한 경우에 찬성 입장 비율이 56.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34.61$).

외국어 구사 능력별로 살펴보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날수록 “찬성”과 “적극 찬성” 입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어 구사 불능의 교사들인 경우에 “적극 찬성”과 “찬성”의 입장 비율이 각각 3.9%와 41.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36.19$).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제주도 초·중등 교사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여교사보다는 남교사가, 30대 40대 교사보다는 50대 이상의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보다는 고등학교 교사가, 해외 여행 경험이 전무한 교사들보다는 있는 교사들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교사일수록 찬성 입장의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인 경우에 전공과목별 차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이 “적극 반대” 입장이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과학교과 교사들의 “적극적

반대” 입장이 24.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8>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찬·반 입장

구분		적극 찬성	찬성	반대	적극 반대	모름	합계	χ^2	df	p
성별	남	16 (5.4)	198 (67.3)	51 (17.3)	27 (9.2)	2 (.7)	294 (100.0)	18.28	4	.001
	여	11 (3.3)	181 (53.6)	96 (28.4)	45 (13.3)	5 (1.5)	338 (100.0)			
연령별	20대	3 (2.8)	65 (60.2)	18 (16.7)	20 (18.5)	2 (1.9)	108 (100.0)	26.64	12	.009
	30대	2 (1.7)	72 (60.5)	28 (23.5)	15 (12.6)	2 (1.7)	119 (100.0)			
	40대	16 (5.1)	176 (56.1)	90 (28.7)	30 (9.6)	2 (.6)	314 (100.0)			
	50대 이상	6 (6.6)	66 (72.5)	11 (12.1)	7 (7.7)	1 (1.1)	91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7 (4.1)	96 (55.8)	42 (24.4)	24 (14.0)	3 (1.7)	172 (100.0)	18.91	8	.015
	중학교	2 (1.6)	64 (51.6)	35 (28.2)	22 (17.7)	1 (.8)	124 (100.0)			
	고등학교	18 (5.4)	219 (65.2)	70 (20.8)	26 (7.7)	3 (.9)	336 (100.0)			
전공과목별	국어	4 (5.4)	37 (50.0)	25 (33.8)	7 (9.5)	1 (1.4)	74 (100.0)	50.99	24	.001
	외국어	8 (10.8)	47 (63.5)	15 (20.3)	4 (5.4)		74 (100.0)			
	수학	1 (1.6)	43 (70.5)	11 (18.0)	5 (8.2)	1 (1.6)	61 (100.0)			
	과학		24 (53.3)	8 (17.8)	11 (24.4)	2 (4.4)	45 (100.0)			
	사회	3 (4.8)	32 (50.8)	20 (31.7)	8 (12.7)		63 (100.0)			
	예·체능	2 (5.9)	19 (55.9)	10 (29.4)	3 (8.8)		34 (100.0)			
	실업	2 (1.8)	83 (73.5)	17 (15.0)	11 (9.7)		113 (100.0)			

구분		적극 찬성	찬성	반대	적극 반대	모름	합계	χ^2	df	p
해의 연변 노행 노행	4회 이상	7 (9.1)	54 (70.1)	12 (15.6)	4 (5.2)		77 (100.0)	34.61	16	.004
	3회	7 (9.9)	41 (57.7)	14 (19.7)	9 (12.7)		71 (100.0)			
	2회	4 (4.0)	65 (64.4)	25 (24.8)	7 (6.9)		101 (100.0)			
	1회	5 (3.0)	102 (61.1)	39 (23.4)	20 (12.0)	1 (.6)	167 (100.0)			
	없음	4 (1.9)	117 (54.2)	57 (26.4)	32 (14.8)	6 (2.8)	216 (100.0)			
외국 언어 능력 구분 별	능숙	5 (16.1)	17 (54.8)	5 (16.1)	4 (12.9)		31 (100.0)	36.19	12	.000
	의사소통가 능	8 (6.3)	86 (68.3)	26 (20.6)	6 (4.8)		126 (100.0)			
	미숙	11 (2.8)	244 (61.3)	90 (22.6)	47 (11.8)	6 (1.5)	398 (100.0)			
	불능	3 (3.9)	32 (41.6)	26 (33.8)	15 (19.5)	1 (1.3)	77 (100.0)			
합계		27 (4.3)	379 (60.0)	147 (23.3)	72 (11.4)	7 (1.1)	632 (100.0)			

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찬성하는 이유

앞의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교사들의 찬·반의 견해를 전체적인 집계한 결과, “적극 찬성” 4.3%, “찬성” 60.0%, “반대” 23.3%, “적극 반대” 11.4%, “모름” 1.1%로 찬성 입장 비율이 64.3% 이고, 반대 입장 비율이 34.7%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응답자 386명을 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찬성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고르면?”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43.5%, “1차 산업의 성장 한계 극복”이라는 응답이 20.4%,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 창조”가 17.4%, “고용 창출”이 15.7%, “세계 평화에 이바지”라는 응답이 3.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9> 참조)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 문항으로 통계적 의미를 따지기 곤란하나,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단연 높게 나타나지만, 30대의 경우는 “1차 산업의 성장 한계 극복”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 이상인 경우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 창조”를 위하여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 과목별로 살펴보아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성장 한계 극복” 순으로 그 이유를 내세우지만, 외국어과 교사들과 예·체능 교과 교사들인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 창조”를 그 이유로 꼽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외국어 구사 능력별로 보아도 외국어 구사에 능숙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 창조”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 이유로 꼽고 있으며, 외국어 구사 불능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 창조”를 이유로 꼽는 비율이 4.2%에 불과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주도내 초·중등 교사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찬성의 이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1차 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 찾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의 창조라든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라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듯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유 분방하고 다양한 외국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외국어과 교사와 예·체능계 교과 교사들은 선진적인 문화 창조 능력을 그 이유로 꼽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9>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찬성하는 이유

구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1차산업성장 한계 극복	경쟁력 있는 선진문화창조	세계평화 기여	합계	
성별	남	136 (44.7)	47 (15.5)	56 (18.4)	54 (17.8)	11 (3.6)	205 (67.4)
	여	122 (42.2)	46 (15.9)	65 (22.5)	49 (17.0)	7 (2.4)	181 (62.6)

구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1차산업성장 한계 극복	경쟁력 있는 선진문화창조	세계평화 기여	합계
연령	20대	42 (42.4)	18 (18.2)	21 (21.2)	18 (18.2)	65 (65.7)
	30대	49 (40.8)	16 (13.3)	31 (25.8)	21 (17.5)	74 (61.7)
	40대	118 (44.0)	47 (17.5)	50 (18.7)	43 (16.0)	176 (65.7)
	50대 이상	49 (46.2)	12 (11.3)	19 (17.9)	21 (19.8)	71 (67.0)
학력	초등학교	65 (43.6)	16 (10.7)	34 (22.8)	32 (21.5)	97 (65.1)
	중학교	42 (47.7)	11 (12.5)	16 (18.2)	17 (19.3)	58 (65.9)
	고등학교	151 (42.4)	66 (18.5)	71 (19.9)	54 (15.2)	231 (64.9)
지역	국어	28 (45.2)	10 (16.1)	16 (25.8)	5 (8.1)	39 (62.9)
	외국어	33 (39.8)	15 (18.1)	14 (16.9)	18 (21.7)	54 (65.1)
	수학	33 (45.8)	11 (15.3)	15 (20.8)	12 (16.7)	41 (56.9)
	과학	16 (53.3)	2 (6.7)	6 (20.0)	5 (16.7)	23 (76.7)
	사회	23 (52.3)	7 (15.9)	8 (18.2)	5 (11.4)	31 (70.5)
	예·체능	10 (32.3)	8 (25.8)	5 (16.1)	8 (25.8)	21 (67.7)
	실업	51 (40.8)	24 (19.2)	24 (19.2)	19 (15.2)	82 (65.6)
빈도	4회 이상	40 (40.4)	12 (12.1)	23 (23.2)	21 (21.2)	61 (61.6)
	3회	31 (43.1)	16 (22.2)	13 (18.1)	10 (13.9)	46 (63.9)
	2회	46 (43.4)	20 (18.9)	10 (9.4)	24 (22.6)	67 (63.2)
	1회	63 (41.4)	21 (13.8)	40 (26.3)	23 (15.1)	101 (66.4)
	없음	78 (47.6)	24 (14.6)	35 (21.3)	25 (15.2)	111 (67.7)
능력	능숙	13 (39.4)	4 (12.1)	6 (18.2)	10 (30.3)	21 (63.6)
	의사소통가 능	58 (41.7)	26 (18.7)	29 (20.9)	22 (15.8)	90 (64.7)
	미숙	162 (43.4)	56 (15.0)	72 (19.3)	69 (18.5)	242 (64.9)
	불능	25 (52.1)	7 (14.6)	14 (29.2)	2 (4.2)	33 (68.8)
합계	258 (43.5)	93 (15.7)	121 (20.4)	103 (17.4)	18 (3.0)	386 (65.1)

5)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

앞의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교사들의 찬·반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적극 찬성” 4.3%, “찬성” 60.0%, “반대” 23.3%, “적극 반대” 11.4%, “모름” 1.1%로 찬성 입장 비율이 64.3%이고, 반대 입장 비율이 34.7%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응답자 219명을 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고르면?”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전통문화 파괴 및 정체성의 위기”라는 응답이 44.8%, “빈부격차 및 계층간 위화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각종 범죄 및 치안 불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는 응답이 15.2%, “환경 오염”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는 응답이 13.0%, “부의 도외 유출”을 이유로 꼽는 응답 비율이 10.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0> 참조).

전체적으로 모든 변인에서 전통 문화의 파괴와 정체성의 위기를 제1의 이유로 꼽고 있으나, 남, 여교사간을 비교해보면 남교사들은 빈부 격차에 대한 우려를 두 번째의 반대 이유로 보는데 비해, 여교사들은 각종 범죄의 발생과 치안 불안을 그 두 번째의 이유로 보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들과 중학교 교사들은 “전통문화 파괴 및 정체성의 위기”에 이어 “각종 범죄 및 치안 불안”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으나,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통 문화 파괴 및 정체성의 위기”에 이어 “빈부 격차 및 계층간의 위화감”을 반대의 두 번째 이유로 꼽는 점이 다르다.

앞의 찬성 이유를 묻는 설문 응답자들인 경우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1차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라는 경제적 이유를 주로 꼽고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초·중등 교사들인 경우는 “전통 문화의 파괴와 정체성의 위기” 초래와 “각종 범죄와 치안 불안”과 같은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반대의 주요한 이유로 꼽는 점이 다르다 하겠다. 세계화 물결 속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제주인의 정체성과 제주 문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김항원 교수는 세계화 시대에서도 제주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²⁴⁾

<표-1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

구분		환경오염	전통문화·정체성 위기	각종범죄치안불안	빈부격차및위화감	부의도외유출	합계
성별	남	13 (12.6)	45 (43.7)	12 (11.7)	19 (18.4)	14 (13.6)	68 (66.0)
	여	22 (13.2)	76 (45.5)	29 (17.4)	25 (15.0)	15 (9.0)	109 (65.3)
연령별	20대	3 (9.1)	13 (39.4)	5 (15.2)	7 (21.2)	5 (15.2)	21 (63.6)
	30대	8 (14.0)	31 (54.4)	7 (12.3)	4 (7.0)	7 (12.3)	37 (64.9)
	40대	21 (13.3)	70 (44.3)	28 (17.7)	27 (17.1)	12 (7.6)	104 (65.8)
	50대 이상	3 (13.6)	7 (31.8)	1 (4.5)	6 (27.3)	5 (22.7)	15 (68.2)
학교급별	초등학교	9 (12.9)	30 (42.9)	14 (20.0)	11 (15.7)	6 (8.6)	47 (67.1)
	중학교	6 (9.8)	29 (47.5)	12 (19.7)	10 (16.4)	4 (6.6)	41 (67.2)
	고등학교	20 (14.4)	62 (44.6)	15 (10.8)	23 (16.5)	19 (13.7)	89 (64.0)

24) 김항원(2001), “세계화에 대비한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백록논총」, 제 3집, p.17.

구분		환경오염	전통문화· 정체성 위기	각종범죄 치안불안	빈부격차 및위화감	부의 도의유출	합계
전공 과목별	국어	7 (17.5)	20 (50.0)	5 (12.5)	3 (7.5)	5 (12.5)	28 (70.0)
	외국어	2 (8.0)	16 (64.0)	3 (12.0)	3 (12.0)	1 (4.0)	18 (72.0)
	수학	3 (17.6)	5 (29.4)	2 (11.8)	4 (23.5)	3 (17.6)	12 (70.6)
	과학	1 (5.9)	8 (47.1)	3 (17.6)	5 (29.4)		12 (70.6)
	사회	6 (15.0)	18 (45.0)	4 (10.0)	8 (20.0)	4 (10.0)	23 (57.5)
	예·체능	2 (9.1)	7 (31.8)	6 (27.3)	3 (13.6)	4 (18.2)	12 (54.5)
	실업	5 (12.2)	19 (46.3)	4 (9.8)	7 (17.1)	6 (14.6)	27 (65.9)
해방의 빈도	4회 이상	2 (8.7)	11 (47.8)	3 (13.0)	4 (17.4)	3 (13.0)	16 (69.6)
	3회	4 (18.2)	9 (40.9)	2 (9.1)	4 (18.2)	3 (13.6)	16 (72.7)
	2회	8 (18.2)	20 (45.5)	6 (13.6)	9 (20.5)	1 (2.3)	27 (61.4)
	1회	9 (11.5)	32 (41.0)	16 (20.5)	11 (14.1)	10 (12.8)	50 (64.1)
	없음	12 (11.7)	49 (47.6)	14 (13.6)	16 (15.5)	12 (11.7)	68 (66.0)
의국어 구사 능력별	능숙		4 (50.0)	1 (12.5)	3 (37.5)		5 (62.5)
	의사소통가능	6 (14.0)	22 (51.2)	6 (14.0)	6 (14.0)	3 (7.0)	30 (69.8)
	미숙	20 (11.6)	79 (45.9)	25 (14.5)	28 (16.3)	20 (11.6)	113 (65.7)
	불능	9 (19.1)	16 (34.0)	9 (19.1)	7 (14.9)	6 (12.8)	29 (61.7)
합계		35 (13.0)	121 (44.8)	41 (15.2)	44 (16.3)	29 (10.7)	177 (65.6)

6)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산업 분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를 두 가지만 고르면?”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장차 제주국제자유도

시 추진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산업 분야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관광·휴양” 분야(37.7%), “물류·교역·금융” 분야(19.7%), “교육” 분야(17.4%), “첨단산업(정보통신, 생명과학)” 분야(14.2%), “농·어업” 분야(11.1%) 순으로 응답하였다.(<표-11> 참조)

두 가지를 복수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서 남교사들과 여교사들 모두 “관광·휴양” 분야에 각각 37.0%와 38.3%를 응답하여 1순위로 꼽았으나, 남교사들은 “물류·교역·금융” 분야를 21.5%로 2순위로 보았으나, 여교사들은 “교육” 분야를 20.4% 2순위로 보아 남교사들의 14.3% 보다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학교급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들은 “관광·휴양” 분야와 “교육” 분야를 각각 1, 2순위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해, 고등학교 교사들은 “관광·휴양” 분야와 “물류·교역·금융” 분야를 1, 2순위로 중요하다고 보는 점이 차이가 있다.

전공 교과목별로 살펴보면, 외국어 교과 교사들과 과학 교과 교사들 역시 “관광·휴양” 분야와 “교육” 분야를 각각 1, 2순위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해, 실업 교과 교사들은 “관광·휴양” 분야를 중시하는 것은 전공 교과목에 대한 애착과 자존심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 여행 경험이 전무한 교사들의 경우도 “관광·휴양” 분야 다음으로 “교육”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 구사 능력에서 보면 유독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2순위로 “교육” 분야(20.4%)를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농·어업” 분야(19.7%)를 3순위로 강조하고 있는 점도 색다르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중심 주체인 제주도에서 제시하는 「종합계

획」에서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복지를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여,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로 그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와 중점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물론 본 조사 결과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경제적 논리에 의한 접근 못지 않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적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11>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산업 분야

구분		농어업	관광휴양	첨단산업	물류·교역 ·금융	교육	합계
성별	남	53 (11.0)	179 (37.0)	79 (16.3)	104 (21.5)	69 (14.3)	293 (60.5)
	여	64 (11.2)	218 (38.3)	70 (12.3)	103 (18.1)	114 (20.0)	339 (59.6)
연령	20대	18 (9.8)	68 (37.2)	26 (14.2)	38 (20.8)	33 (18.0)	110 (60.1)
	30대	20 (10.1)	78 (39.4)	27 (13.6)	38 (19.2)	35 (17.7)	120 (60.6)
	40대	67 (12.9)	193 (37.0)	76 (14.6)	92 (17.7)	93 (17.9)	312 (59.9)
	50대 이상	12 (7.9)	58 (38.4)	20 (13.2)	39 (25.8)	22 (14.6)	90 (59.6)
학교급	초등학교	23 (8.2)	113 (40.2)	33 (11.7)	50 (17.8)	62 (22.1)	173 (61.6)
	중학교	25 (12.1)	79 (38.3)	27 (13.1)	35 (17.0)	40 (19.4)	125 (60.7)
	고등학교	69 (12.2)	205 (36.2)	89 (15.7)	122 (21.6)	81 (14.3)	334 (59.0)

구분		농어업	관광휴양	첨단산업	물류·교역 · 금융	교육	합계
전과목별	국어	21 (15.3)	48 (35.0)	19 (13.9)	29 (21.2)	20 (14.6)	75 (54.7)
	외국어	8 (6.6)	50 (41.0)	17 (13.9)	22 (18.0)	25 (20.5)	73 (59.8)
	수학	8 (8.2)	35 (35.7)	16 (16.3)	24 (24.5)	15 (15.3)	59 (60.2)
	과학	13 (18.1)	25 (34.7)	7 (9.7)	11 (15.3)	16 (22.2)	44 (61.1)
	사회	16 (14.5)	38 (34.5)	13 (11.8)	26 (23.6)	17 (15.5)	64 (58.2)
	예·체능	8 (13.8)	24 (41.4)	5 (8.6)	13 (22.4)	8 (13.8)	34 (58.6)
	실업	21 (11.6)	66 (36.5)	39 (21.5)	33 (18.2)	22 (12.2)	114 (63.0)
해외빈도별	4회 이상	14 (10.5)	53 (39.8)	16 (12.0)	29 (21.8)	21 (15.8)	76 (57.1)
	3회	7 (6.0)	49 (41.9)	15 (12.8)	30 (25.6)	16 (13.7)	71 (60.7)
	2회	21 (12.4)	70 (41.2)	19 (11.2)	35 (20.6)	25 (14.7)	101 (59.4)
	1회	25 (9.5)	92 (34.8)	49 (18.6)	53 (20.1)	45 (17.0)	164 (62.1)
	없음	50 (13.6)	133 (36.0)	50 (13.6)	60 (16.3)	76 (20.6)	220 (59.6)
외언사력 구구언어별	능숙	2 (3.8)	21 (39.6)	11 (20.8)	8 (15.1)	11 (20.8)	31 (58.5)
	의사소통가능	19 (8.9)	84 (39.3)	29 (13.6)	47 (22.0)	35 (16.4)	127 (59.3)
	미숙	69 (10.6)	249 (38.4)	95 (14.6)	127 (19.6)	109 (16.8)	394 (60.7)
	불능	27 (19.7)	43 (31.4)	14 (10.2)	25 (18.2)	28 (20.4)	80 (58.4)
합계		117 (11.1)	397 (37.7)	149 (14.2)	207 (19.7)	183 (17.4)	632 (60.0)

7)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교 우위 요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오키나와 등의 기존 국제자유도시와 비교하여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 가지만 고르면?”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서 기존의 다른 국제자유도시들과 비교 우위의

요소를 찾아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각종 자료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청정 자연 환경”(48.4%), “지리적 위치 (동북아의 중심)”(32.3%), “다양한 전통문화 자원”(11.6%), “교통·정보 인프라”(4.6%), “정부의 의지”(3.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12> 참조)

제주도는 지리·경제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경, 상해, 동경, 오사카, 서울 등 아시아 5대 도시와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연결될 수 있으며 동북아 물류 벨트(러시아 - 일본 - 대만 - 홍콩 - 중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국내적으로 물류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인접 국가들간의 물류 시설의 공동이용과 공동투자과 같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운과 항공을 통해 동북아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제주도는 국제 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의 물류비용의 약 60%가 운송비이고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고려하면 동북아의 주요 상품생산지로부터 해상 공간적으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제주도는 새로운 동북아 물류 기지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⁵⁾

<표-1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교 우위 요소

구분		지리적 위치	청정 자연 환경	다양한 전통 문화자원	교통정보 인프라	정부 의지	합계
성별	남	172 (34.4)	232 (46.4)	45 (9.0)	30 (6.0)	21 (4.2)	294 (58.8)
	여	175 (30.5)	287 (50.1)	80 (14.0)	19 (3.3)	12 (2.1)	337 (58.8)

25) 강기춘(1999), “국제자유도시와 통상·금융”,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 연구소, 「제주리뷰」, 제5호, pp.13~14.

구분		지리적 위치	청정 자연 환경	다양한전통 문화자원	교통정보 인프라	정부 의지	합계
연령별	20대	61 (33.2)	87 (47.3)	21 (11.4)	8 (4.3)	7 (3.8)	108 (58.7)
	30대	59 (29.8)	100 (50.5)	27 (13.6)	8 (4.0)	4 (2.0)	120 (60.6)
	40대	177 (33.4)	255 (48.1)	57 (10.8)	24 (4.5)	17 (3.2)	312 (58.9)
	50대 이상	50 (31.1)	77 (47.8)	20 (12.4)	9 (5.6)	5 (3.1)	91 (56.5)
학교급	초등학교	87 (30.5)	143 (50.2)	41 (14.4)	8 (2.8)	6 (2.1)	172 (60.4)
	중학교	73 (33.5)	107 (49.1)	27 (12.4)	8 (3.7)	3 (1.4)	125 (57.3)
	고등학교	187 (32.8)	269 (47.2)	57 (10.0)	33 (5.8)	24 (4.2)	334 (58.6)
전공과 목별	국어	45 (34.1)	66 (50.0)	14 (10.6)	5 (3.8)	2 (1.5)	75 (56.8)
	외국어	40 (31.0)	69 (53.5)	13 (10.1)	4 (3.1)	3 (2.3)	74 (57.4)
	수학	37 (35.9)	44 (42.7)	10 (9.7)	11 (10.7)	1 (1.0)	61 (59.2)
	과학	25 (36.8)	36 (52.9)	4 (5.9)	1 (1.5)	2 (2.9)	43 (63.2)
	사회	37 (32.7)	53 (46.9)	17 (15.0)	5 (4.4)	1 (.9)	64 (56.6)
	예·체능	21 (37.5)	22 (39.3)	8 (14.3)	3 (5.4)	2 (3.6)	33 (58.9)
	실업	57 (29.7)	88 (45.8)	19 (9.9)	12 (6.3)	16 (8.3)	112 (58.3)
해외여 빈도	4회 이상	43 (32.3)	63 (47.4)	17 (12.8)	8 (6.0)	2 (1.5)	77 (57.9)
	3회	37 (31.1)	58 (48.7)	13 (10.9)	7 (5.9)	4 (3.4)	71 (59.7)
	2회	59 (34.7)	79 (46.5)	17 (10.0)	8 (4.7)	7 (4.1)	99 (58.2)
	1회	92 (33.1)	139 (50.0)	29 (10.4)	12 (4.3)	6 (2.2)	165 (59.4)
	없음	116 (31.1)	180 (48.3)	49 (13.1)	14 (3.8)	14 (3.8)	219 (58.7)
외국어 구사능 력별	능숙	19 (36.5)	26 (50.0)	4 (7.7)	3 (5.8)		31 (59.6)
	의사소통가능	67 (31.3)	109 (50.9)	24 (11.2)	8 (3.7)	6 (2.8)	127 (59.3)
	미숙	217 (32.5)	327 (49.0)	71 (10.6)	29 (4.3)	24 (3.6)	394 (59.0)
	불능	44 (31.7)	57 (41.0)	26 (18.7)	9 (6.5)	3 (2.2)	79 (56.8)
합계		347 (32.3)	519 (48.4)	125 (11.6)	49 (4.6)	33 (3.1)	631 (58.8)

8)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주도의 초·중등교사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만 고르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도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39.1%),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30.2%), “교육적 대처 방안 모색”(13.1%), “외자 유치 방안”(11.3%), “지방정부의 의지”(6.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3> 참조)

「종합계획」에 제시된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54.7%가 ‘불충분’, 41.4%가 ‘보통’, 3.9%가 ‘충분’으로 나타나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본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²⁶⁾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둘째, 지방행정역량의 강화, 셋째, 지역주민의 역할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청정 자연 환경과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못지 않게 중앙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과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인구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 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상황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초·중등 교사들이 “도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우선하여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

26) 이경원(1999), “지방자치와 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앞의 책, p.27.

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입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의 참여 의사, 희망 참여 경로,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²⁷⁾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주민의 참여 경로 확대가 필요하며,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의 다양화와 개발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성공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 활동의 주체인 교사로서 교육적 대처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의지”를 최하위로 꼽은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지방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다른 조사 결과²⁸⁾와는 배치되는 응답 결과라 하겠다.



<표-1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구분		도민 의견 수렴반영	중앙정 부 재정지 원	외자유치 방안	지방정부 의지	교육적대 처방안 모색	합계
성별	남	187 (37.5)	158 (31.7)	61 (12.2)	23 (4.6)	70 (14.0)	295 (59.1)
	여	240 (40.4)	172 (29.0)	62 (10.4)	47 (7.9)	73 (12.3)	343 (57.7)
연령 별	20대	71 (37.0)	54 (28.1)	30 (15.6)	13 (6.8)	24 (12.5)	111 (57.8)
	30대	77 (36.0)	70 (32.7)	21 (9.8)	18 (8.4)	28 (13.1)	121 (56.5)
	40대	223 (41.8)	157 (29.5)	48 (9.0)	31 (5.8)	74 (13.9)	316 (59.3)
	50대 이상	56 (36.4)	49 (31.8)	24 (15.6)	8 (5.2)	17 (11.0)	90 (58.4)

27) 이용탁(2003), “지역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p.121

28) ——(2003), 앞의 논문, p.119

구분		도민의견 수렴반영	중앙정부 재정지원	외자유치 방안	지방정부 의지	교육적대처 방안 모색	합계
학급 단위	초등학교	122 (40.9)	86 (28.9)	37 (12.4)	19 (6.4)	34 (11.4)	175 (58.7)
	중학교	99 (46.3)	57 (26.6)	19 (8.9)	14 (6.5)	25 (11.7)	125 (58.4)
	고등학교	206 (35.5)	187 (32.2)	67 (11.5)	37 (6.4)	84 (14.5)	338 (58.2)
전과목 단위	국어	62 (47.3)	41 (31.3)	5 (3.8)	8 (6.1)	15 (11.5)	76 (58.0)
	외국어	45 (35.7)	34 (27.0)	16 (12.7)	12 (9.5)	19 (15.1)	74 (58.7)
	수학	38 (37.3)	34 (33.3)	13 (12.7)	5 (4.9)	12 (11.8)	61 (59.8)
	과학	30 (40.0)	17 (22.7)	10 (13.3)	5 (6.7)	13 (17.3)	45 (60.0)
	사회	50 (45.5)	28 (25.5)	15 (13.6)	6 (5.5)	11 (10.0)	65 (59.1)
	예·체능	25 (42.4)	20 (33.9)	6 (10.2)		8 (13.6)	33 (55.9)
	실업	57 (28.8)	71 (35.9)	22 (11.1)	16 (8.1)	32 (16.2)	113 (57.1)
핵심 역량 단위	4회 이상	47 (34.8)	41 (30.4)	26 (19.3)	8 (5.9)	13 (9.6)	77 (57.0)
	3회	46 (39.7)	35 (30.2)	18 (15.5)	5 (4.3)	12 (10.3)	72 (62.1)
	2회	72 (39.8)	54 (29.8)	20 (11.0)	13 (7.2)	22 (12.2)	102 (56.4)
	1회	110 (38.9)	89 (31.4)	24 (8.5)	20 (7.1)	40 (14.1)	168 (59.4)
	없음	152 (40.2)	111 (29.4)	35 (9.3)	24 (6.3)	56 (14.8)	219 (57.9)
외국어 능력 단위	능숙	17 (31.5)	17 (31.5)	11 (20.4)	1 (1.9)	8 (14.8)	31 (57.4)
	의사소통가능	80 (37.7)	58 (27.4)	29 (13.7)	18 (8.5)	27 (12.7)	128 (60.4)
	미숙	272 (39.5)	217 (31.5)	68 (9.9)	42 (6.1)	90 (13.1)	400 (58.1)
	불능	58 (42.0)	38 (27.5)	15 (10.9)	9 (6.5)	18 (13.0)	79 (57.2)
합계		427 (39.1)	330 (30.2)	123 (11.3)	70 (6.4)	143 (13.1)	638 (58.4)

9)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 이후의 제주도민의 전반적 사회·경제적 지위 예측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부터 「특별법」이 종료되는 2011년으로 잡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특별법」과 「종합계획」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정착되었을 때,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 응답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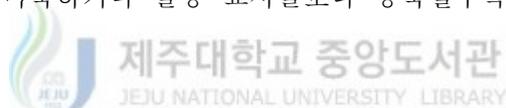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하여 <표-14>에서 보듯이 연령별 교사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교사간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여행 경험 유무와 빈도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교사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정착되었을 때,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chi^2 = 16.57$). 즉 남교사들은 “아주 높아질 것이다”와 “조금 높아질 것이다”에 각각 69.5%와 6.8%의 응답을 보인 데 비하여, 여교사들은 각각 61.4%와 3.8%의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남교사들이 여교사들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 이후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보는데 비하여, 여교사들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19.5%)에 남교사 (10.2%) 보다 높게 응답하여 유보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과목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 < .05$, $\chi^2 = 39.15$). 전반적으로 “아주 높아질 것이다”와 “조금 높아질 것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독 사회와 과학 교과 교사들은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와 “아주 낮아질 것이다”에 각각 24.6%와 26.7%의 응답 비율을 보여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국어 구사 능력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28.37$). 외국어 구사 능력이 능숙할수록 외국어 구사 능력이 미숙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보다 “아주 높아질 것이다”와 “조금 높아질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와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에 각각 23.8%와 18.8%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으로써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견해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교사보다는 남교사가, 사회나 과학 교과 교사들보다는 국어, 외국어, 수학, 예·체능, 실업 교사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 이후에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외국어 구사 능력이 미숙하거나 불능 교사들보다 능숙할수록 긍정적이고 낙관적임을 알 수 있다.



<표-14>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 이후의 제주도민의 전반적 사회·경제적 지위 예측

구분		아주 높아짐	조금 높아짐	변화 없음	대체로 낮아짐	아주 낮아짐	합계	χ^2	df	p
성별	남	20 (6.8)	205 (69.5)	30 (10.2)	32 (10.8)	8 (2.7)	295 (100.0)	16.57	4	.002
	여	13 (3.8)	208 (61.4)	66 (19.5)	48 (14.2)	4 (1.2)	339 (100.0)			
연령별	20대	6 (5.6)	73 (67.6)	19 (17.6)	9 (8.3)	1 (.9)	108 (100.0)	15.82	12	.200
	30대	3 (2.5)	77 (64.2)	21 (17.5)	17 (14.2)	2 (1.7)	120 (100.0)			
	40대	17 (5.4)	194 (61.6)	49 (15.6)	47 (14.9)	8 (2.5)	315 (100.0)			
	50대 이상	7 (7.7)	69 (75.8)	7 (7.7)	7 (7.7)	1 (1.1)	91 (100.0)			
학교별	초등학교	8 (4.6)	113 (65.3)	30 (17.3)	20 (11.6)	2 (1.2)	173 (100.0)	11.04	8	.200
	중학교	4 (3.3)	72 (58.5)	27 (22.0)	17 (13.8)	3 (2.4)	123 (100.0)			
	고등학교	21 (6.2)	228 (67.5)	39 (11.5)	43 (12.7)	7 (2.1)	338 (100.0)			

구분		아주 높아짐	조금 높아짐	변화 없음	대체로 낮아짐	아주 낮아짐	합계	χ^2	df	p
전공 과별	국어	3 (4.0)	44 (58.7)	15 (20.0)	11 (14.7)	2 (2.7)	75 (100.0)	39.15	24	.026
	외국어	9 (12.3)	46 (63.0)	11 (15.1)	6 (8.2)	1 (1.4)	73 (100.0)			
	수학	3 (4.9)	46 (75.4)	4 (6.6)	7 (11.5)	1 (1.6)	61 (100.0)			
	과학	1 (2.2)	25 (55.6)	7 (15.6)	8 (17.8)	4 (8.9)	45 (100.0)			
	사회	5 (7.7)	35 (53.8)	9 (13.8)	15 (23.1)	1 (1.5)	65 (100.0)			
	예·체능	3 (9.1)	23 (69.7)	5 (15.2)	2 (6.1)		33 (100.0)			
	실업	2 (1.8)	82 (72.6)	15 (13.3)	12 (10.6)	2 (1.8)	113 (100.0)			
해빈 도별	4회 이상	6 (7.8)	54 (70.1)	8 (10.4)	7 (9.1)	2 (2.6)	77 (100.0)	19.33	16	.252
	3회	5 (7.1)	43 (61.4)	12 (17.1)	10 (14.3)		70 (100.0)			
	2회	7 (6.9)	65 (63.7)	15 (14.7)	14 (13.7)	1 (1.0)	102 (100.0)			
	1회	10 (6.0)	112 (66.7)	30 (17.9)	12 (7.1)	4 (2.4)	168 (100.0)			
	없음	5 (2.3)	139 (64.1)	31 (14.3)	37 (17.1)	5 (2.3)	217 (100.0)			
의사 자격 유무 별	능숙	5 (17.2)	17 (58.6)	3 (10.3)	4 (13.8)		29 (100.0)	28.37	12	.005
	의사소통가 능	10 (7.9)	83 (65.4)	19 (15.0)	14 (11.0)	1 (.8)	127 (100.0)			
	미숙	13 (3.3)	275 (69.1)	55 (13.8)	47 (11.8)	8 (2.0)	398 (100.0)			
	불능	5 (6.3)	38 (47.5)	19 (23.8)	15 (18.8)	3 (3.8)	80 (100.0)			
합계		33 (5.2)	413 (65.1)	96 (15.1)	80 (12.6)	12 (1.9)	634 (100.0)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부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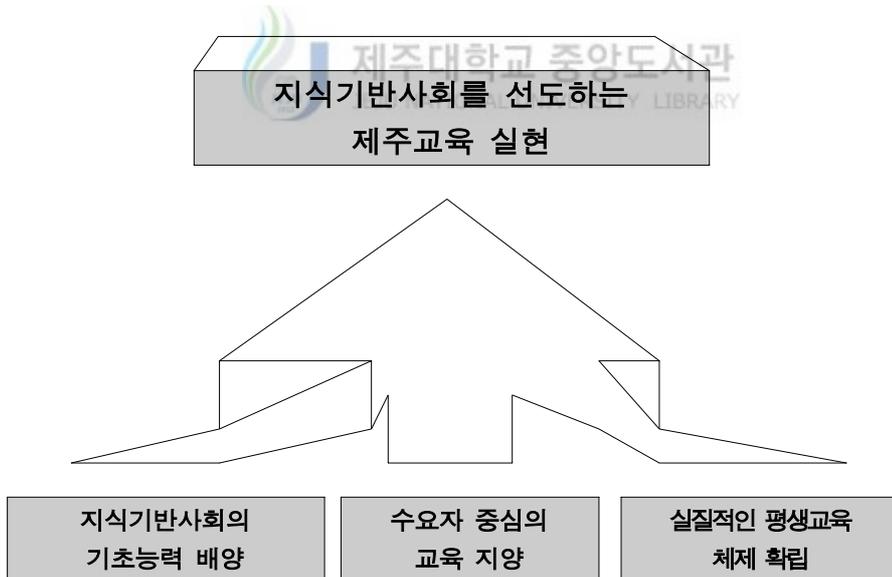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교육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종합계획」의

‘제 3장 제 1절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및 인재 육성’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⁹⁾

- 초·중·고·대학 및 평생학습 교육과정에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력, 정보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학교 중심 교육체제에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하여 취학 전 교육에서 학교교육을 거쳐 성인교육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교육부문의 발전 방향



* 자료 : 제주도(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9) 제주도(2003), 앞의 책, p.191

또한 제주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전략과 방향을 아래 도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³⁰⁾

<표-15> 교육 현황과 문제점

현 황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과학 교육을 받았거나 업무 및 금융지식을 갖춘 인력 부족 · 평균 이하 교육 수준의 인력 · 우수 학생은 육지로 이전 · 대학 내에서 연구·조사 및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몇몇 대학은 진문화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능력과 외국어 학교의 부족 · 내륙지역의 학생 유치가 제한됨 · 서울 지역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 부족 ·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분산된 접근 · 단편적 연구 개발 · 대학 및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지원 부족

*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p.115



<표-16> 해결 전략과 제안 방향

해 결 전략	제 안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한 교육인력을 유치하여 제주의 교육수준을 고양 · 제주대학교의 명성을 제고 · 국제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연구범위 확대 ·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개발 시설 설립 권장 · 우수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체결(외국 대학 분교 설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지원 강화 · 세계수준의 언어학교 설립 · 우수한 외국대학교와 연계하여 관광 관련 학교 설립 · 인터넷 학교 설립 ·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우수한 외국 학교와 연계하여 스포츠 및 의료 학교 설립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생명공학 및 청정 에너지 연구 제고

*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p.1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교육 부문의 여러 문제에

30) 제주도(2000),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pp.115~116

대해 제주도 기초 교육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초·중등교사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교육적 과제와 역할, 그리고 교육적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제주도의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 교육 시장 개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찬·반 입장과 그 각각의 이유와 이에 따르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자격 제한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과 교사 본인의 자녀라면 외국인학교에 진학시킬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련된 내용의 교수-학습 여부와 그 내용 영역, 일선 학교와 제주도 교육청이 마땅히 대비하고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기에 적합한 시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문항을 작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내용 영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을 두 가지만 고르면?”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전체적 응답 비율(복수 응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외국어 교육”(31.3%), “세계시민 교육”(29.6%), “정체성 교육”(24.2%), “민주시민 및 평화 통일 교육”(5.3%), “직업기능 교육”(4.9%), “정보화 교육”(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7> 참조)

남·녀 교사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 3순위의 차이가 없으나, 4순위에서 남교사들은 “민주시민 및 평화 통일 교육”(8.4%)을 꼽고 있으나, 여교사들은 “정보화 교육”과 “직업 기능 교육”(4.0%)을 들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교사들은 “세계시민 교육”(32.7%), “외국어 교육”(30.8%)을 각각 1, 2순위로 보는 점이 다른 연령대 교사들과의 차이점이다. 전공과목별로도 국어 교과,

사회 교과 교사들은 “정체성 교육”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 교과와 실업 교과 교사들은 “세계시민 교육”을 여타 교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해외여행 경험별로 비교해 보면 해외 여행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해외 여행 경험이 전무한 교사들이 비하여 “외국어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없는 교사들은 “정체성 교육”(32.8%)을 가장 중시해야할 과목으로 꼽는 점이 특이하다. 세계화 시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높은 자아정체성, 자립심과 독립심, 공동체의식, 강인함과 검소, 평등의식 및 진취적 기상 등을 꼽는 이가 있음에 비춰 볼 때,³¹⁾ 이러한 결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다.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어 교육’ 40.4%, ‘친절 서비스’ 36.7%, ‘정보통신’ 1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이는 것과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의식’ 44.6%, ‘외국어구사능력’ 33.2%, ‘문화’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본 조사의 응답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원윤수의 조사에 따르면,³²⁾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교육적 과제로 전체 응답자 중 38.7%가 ‘제주인 정체성’ 교육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 지방공무원 모두 제주인 ‘정체성 교육’을 ‘세계화, 정보화 교육’에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종합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업 계획 내용인 ‘외국어 교육 및 연수 강화, 국제화에 대응한 의식교육 강화, 평생직업 교육 훈련체계 확립, 제주전통문화 교육센터 설치’ 등과 일치하고 있다.

31) 김향원(2001), 앞의 논문, p.20.

32) 원윤수(200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초·중등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p.65.

<표-17>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내용 영역

구분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 교육	직업기능 교육	정보화 교육	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통일교육	합계
성별	남	144 (29.4)	144 (29.4)	29 (5.9)	27 (5.5)	105 (21.4)	41 (8.4)	295 (60.2)
	여	196 (32.8)	178 (29.8)	24 (4.0)	24 (4.0)	158 (26.5)	17 (2.8)	340 (57.0)
연령	20대	60 (32.1)	58 (31.0)	7 (3.7)	8 (4.3)	47 (25.1)	7 (3.7)	109 (58.3)
	30대	65 (31.0)	67 (31.9)	9 (4.3)	11 (5.2)	47 (22.4)	11 (5.2)	120 (57.1)
	40대	167 (31.3)	146 (27.3)	28 (5.2)	23 (4.3)	141 (26.4)	29 (5.4)	315 (59.0)
	50대 이상	48 (30.8)	51 (32.7)	9 (5.8)	9 (5.8)	28 (17.9)	11 (7.1)	91 (58.3)
학교 급별	초등학교	87 (30.0)	98 (33.8)	8 (2.8)	13 (4.5)	77 (26.6)	7 (2.4)	172 (59.3)
	중학교	77 (35.5)	57 (26.3)	8 (3.7)	16 (7.4)	50 (23.0)	9 (4.1)	125 (57.6)
	고등학교	176 (30.3)	167 (28.8)	37 (6.4)	22 (3.8)	136 (23.4)	42 (7.2)	338 (58.3)
전과 목별	국어	45 (33.6)	31 (23.1)	5 (3.7)	7 (5.2)	40 (29.9)	6 (4.5)	76 (56.7)
	외국어	52 (42.6)	39 (32.0)	5 (4.1)	4 (3.3)	21 (17.2)	1 (.8)	73 (59.8)
	수학	36 (36.0)	31 (31.0)	9 (9.0)	4 (4.0)	15 (15.0)	5 (5.0)	61 (61.0)
	과학	20 (27.8)	19 (26.4)	6 (8.3)	5 (6.9)	14 (19.4)	8 (11.1)	45 (62.5)
	사회	34 (28.8)	36 (30.5)	4 (3.4)	4 (3.4)	35 (29.7)	5 (4.2)	65 (55.1)
	예·체능	17 (28.3)	16 (26.7)	5 (8.3)	3 (5.0)	14 (23.3)	5 (8.3)	34 (56.7)
	실업	52 (26.3)	55 (27.8)	11 (5.6)	12 (6.1)	47 (23.7)	21 (10.6)	113 (57.1)
평 면 회 빈 도	4회 이상	52 (38.2)	38 (27.9)	4 (2.9)	6 (4.4)	32 (23.5)	4 (2.9)	76 (55.9)
	3회	37 (33.0)	41 (36.6)	5 (4.5)	4 (3.6)	25 (22.3)		72 (64.3)
	2회	53 (30.1)	57 (32.4)	6 (3.4)	5 (2.8)	44 (25.0)	11 (6.3)	102 (58.0)
	1회	90 (31.5)	83 (29.0)	20 (7.0)	14 (4.9)	57 (19.9)	22 (7.7)	168 (58.7)
	없음	108 (28.6)	103 (27.3)	18 (4.8)	22 (5.8)	105 (27.9)	21 (5.6)	217 (57.6)

구분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 교육	직업기능 교육	정보화 교육	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통일교육	합계
외국인 사력 구분	능숙	21 (40.4)	16 (30.8)	1 (1.9)	2 (3.8)	12 (23.1)		31 (59.6)
	의사소통가 능	80 (35.6)	73 (32.4)	6 (2.7)	10 (4.4)	51 (22.7)	5 (2.2)	127 (56.4)
	미숙	197 (29.1)	202 (29.9)	38 (5.6)	34 (5.0)	156 (23.1)	49 (7.2)	397 (58.7)
	불능	42 (31.3)	31 (23.1)	8 (6.0)	5 (3.7)	44 (32.8)	4 (3.0)	80 (59.7)
합계		340 (31.3)	322 (29.6)	53 (4.9)	51 (4.7)	263 (24.2)	58 (5.3)	635 (58.4)

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교육 분야의 가장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교육 시장 개방, 즉 외국인 학교 설립의 자율화, 외국인 교사 채용의 자율화 문제, 외국 대학 분교 설치 허용 등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교육시장 개방(외국인 학교 설립, 외국인 교사 채용 자율화, 외국대학 분교 설치 허용 등)에 대한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응답 결과와 이에 대하여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8>에서 보듯이,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중 해외여행 경험 유무와 빈도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녀 교사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chi^2 = 17.98$). 남교사들인 경우 “적극 찬성”과 “찬성”에서 각각 5.4%와 46.9%를 보여 여교사들의 각각 2.3%와 37.4%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여교사들은 “모름”이라는 응답이 9.6%로 남교사 4.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도 통계적인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chi^2 = 28.21$). 20대와 50대에서 “찬성”과 “적극 찬성”의 비율이 각각 44.1%와 60.0%로 높

은 편이고, 30대와 40대의 교사들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대에
서 “모름”응답 비율이 1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다.($p < .05$, $\chi^2 = 28.99$). 중학교
교사들은 “반대”와 “적극 반대”의 비율이 59.2%의 응답 비율로 고등학교 교사들과 초
등학교 교사들의 44.4%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름” 비
율이 13.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공과목별로도 통계적인 의미의 차이가 나타난다.($p < .05$, $\chi^2 = 42.38$) 외국어
교과 교사와 수학 교과 교사들이 “적극 찬성”과 “찬성” 응답 비율이 각각 61.6%와
66.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교과(64.6%), 과학교과(60.0%), 국어교과
52.0%), 예·체능교과(52.9%) 순으로 각각 “반대”와 “적극 반대”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실업 교과 교사들은 반대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있다.

외국어 구사 능력별로 보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미숙하거나 불능인 경우에 각각 47.9%
와 63.3%의 반대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찬성과 반대가 45% 대 47%로 비슷하나, 여교사보다 남교사
가 찬성 비율이 높고, 50대 교사의 찬성 비율이 높고, 영어와 수학 교과 교사는 찬성 비
율이 사회 과학 교과 교사들은 반대 비율이 높으며, 외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질수록 반
대 응답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8>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입장

구분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모름	합계	χ^2	df	p
성별	남	16 (5.4)	138 (46.9)	90 (30.6)	38 (12.9)	12 (4.1)	294 (100.0)	17.98	4	.001
	여	8 (2.3)	128 (37.4)	134 (39.2)	39 (11.4)	33 (9.6)	342 (100.0)			

구분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모름	합계	χ^2	df	p
연령별	20대	3 (2.7)	46 (41.4)	41 (36.9)	6 (5.4)	15 (13.5)	111 (100.0)	28.21	12	.005
	30대	3 (2.5)	41 (34.5)	44 (37.0)	23 (19.3)	8 (6.7)	119 (100.0)			
	40대	13 (4.1)	130 (41.1)	112 (35.4)	42 (13.3)	19 (6.0)	316 (100.0)			
	50대 이상	5 (5.6)	49 (54.4)	27 (30.0)	6 (6.7)	3 (3.3)	90 (100.0)			
학교별	초등학교	6 (3.4)	68 (38.9)	61 (34.9)	16 (9.1)	24 (13.7)	175 (100.0)	28.99	8	.000
	중학교	1 (.8)	46 (36.8)	51 (40.8)	23 (18.4)	4 (3.2)	125 (100.0)			
	고등학교	17 (5.1)	152 (45.2)	112 (33.3)	38 (11.3)	17 (5.1)	336 (100.0)			
전과목별	국어	1 (1.3)	29 (38.7)	26 (34.7)	13 (17.3)	6 (8.0)	75 (100.0)	42.38	24	.012
	외국어	3 (4.1)	42 (57.5)	17 (23.3)	7 (9.6)	4 (5.5)	73 (100.0)			
	수학	4 (6.7)	36 (60.0)	13 (21.7)	5 (8.3)	2 (3.3)	60 (100.0)			
	과학	2 (4.4)	15 (33.3)	17 (37.8)	10 (22.2)	1 (2.2)	45 (100.0)			
	사회	4 (6.2)	17 (26.2)	29 (44.6)	13 (20.0)	2 (3.1)	65 (100.0)			
	예·체능	2 (5.9)	12 (35.3)	13 (38.2)	5 (14.7)	2 (5.9)	34 (100.0)			
	실업	2 (1.8)	49 (43.4)	49 (43.4)	9 (8.0)	4 (3.5)	113 (100.0)			
행위빈도의별	4회 이상	4 (5.2)	40 (51.9)	19 (24.7)	10 (13.0)	4 (5.2)	77 (100.0)	17.37	16	.362
	3회	5 (6.9)	30 (41.7)	24 (33.3)	9 (12.5)	4 (5.6)	72 (100.0)			
	2회	1 (1.0)	47 (46.5)	35 (34.7)	10 (9.9)	8 (7.9)	101 (100.0)			
	1회	7 (4.2)	64 (38.6)	68 (41.0)	14 (8.4)	13 (7.8)	166 (100.0)			
	없음	7 (3.2)	85 (38.6)	78 (35.5)	34 (15.5)	16 (7.3)	220 (100.0)			
의사능력별	능숙	2 (6.7)	16 (53.3)	8 (26.7)	1 (3.3)	3 (10.0)	30 (100.0)	25.45	12	.013
	의사소통가능	7 (5.5)	62 (48.4)	41 (32.0)	10 (7.8)	8 (6.3)	128 (100.0)			
	미숙	11 (2.8)	167 (41.9)	144 (36.1)	47 (11.8)	30 (7.5)	399 (100.0)			
	불능	4 (5.1)	21 (26.6)	31 (39.2)	19 (24.1)	4 (5.1)	79 (100.0)			
합계		24 (3.8)	266 (41.8)	224 (35.2)	77 (12.1)	45 (7.1)	636 (100.0)			

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부정적 영향

「특별법」 중 교육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 외국인학교와 외국대학 설립,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및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 설치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특별법’ 이전에도 외국인학교와 외국대학, 자율학교 등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특별법 발효와 함께 각종 규제 조항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제주 교육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게 생겼다. 문제는 이대로 시행될 경우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이란 긍정적인 측면 외에 적지 않은 역기능도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시장 개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시장이 개방(외국인학교 설립, 외국인교사 채용 자율화, 외국대학 분교설치 허용 등) 되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 가지만 고르면?”(복수 응답)이라는 질문을 제시하여 응답을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종합한 응답 결과는, “계층간 위화감”(44.5%), “공교육 위축”(35.5%), “교육비 증가”(11.3%), “지역간 불균형”(5.2%), “학생수요 잠식”(3.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19> 참조) 그러나 한가지 특이한 점은 전공과목별 항목에서 예·체능교과 교사들은 “공교육 위축”(35.85%), “계층간 위화감”(32.1%), “교육비 증가”(15.1%)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1년 11월)에서, “국내에 투자 또는 교류·협력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기유학에 따른 외화유출현상 완화 및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여건이 우수한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설립한다고 했는데, 내국인의 조기유학 완화 및 국제전문인력 양성은 외국인 학교가 아닌 우리의 정규학교 체제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확대하던가 기존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그 질의 향상을 통해 달성해야 마땅하지 외국인학교라는 각종 학교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다. 또한 ‘교육여건이 우수한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연간 교육비가 2,000만원이 넘는 외국인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소수 중·상류층에게만 선택권을 줄 뿐 일반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점에 비추어 이번 특별법은 지금껏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이른바 경제력이 있는 교육소비자에게만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며,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까지도 허용”할 것을 내비치고 있는데, 외국인학교를 선호하는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 외국의 교육자본보다는 오히려 자본력을 가진 몇몇 국내 교육기업(예컨대 대형 외국어 사설학원)들이 별때같이 달려들어 제주도에 외국인학교를 세울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고, 이는 이제껏 학교교육을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해 왔던 공교육의 틀을 깨고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 셈이며, 또한 외국인학교와 기존 정규학교간의 질적 차이를 심화시켜 교육의 불평등은 물론 사회의 불평등마저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³³⁾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교육시장의 개방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 등의 시민 단체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귀를 기울이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19>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부정적 영향

구분		교육비 증가	계층간 위화감	공교육 위축	학생수요 잠식	지역간 불균형	합계
성별	남	48 (11.0)	203 (46.3)	141 (32.2)	24 (5.5)	22 (5.0)	291 (66.4)
	여	60 (11.6)	223 (43.0)	199 (38.3)	9 (1.7)	28 (5.4)	339 (65.3)

33) 김민호(200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역기능 해소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2002봄호,

구분		교육비 증가	계층간 위화감	공교육 위축	학생수요 감소	지역간 격차	합계
연령 별	20대	17 (10.0)	74 (43.5)	65 (38.2)	6 (3.5)	8 (4.7)	109 (64.1)
	30대	14 (7.4)	85 (44.7)	76 (40.0)	5 (2.6)	10 (5.3)	120 (63.2)
	40대	60 (12.8)	199 (42.4)	172 (36.7)	15 (3.2)	23 (4.9)	312 (66.5)
	50대 이상	17 (13.3)	68 (53.1)	27 (21.1)	7 (5.5)	9 (7.0)	89 (69.5)
학급 별	초등학교	38 (14.7)	113 (43.6)	89 (34.4)	6 (2.3)	13 (5.0)	174 (67.2)
	중학교	19 (10.1)	92 (48.9)	67 (35.6)	2 (1.1)	8 (4.3)	124 (66.0)
	고등학교	51 (10.0)	221 (43.3)	184 (36.1)	25 (4.9)	29 (5.7)	332 (65.1)
전과목 별	국어	15 (12.5)	56 (46.7)	41 (34.2)	3 (2.5)	5 (4.2)	73 (60.8)
	외국어	11 (10.5)	45 (42.9)	42 (40.0)	4 (3.8)	3 (2.9)	72 (68.6)
	수학	4 (4.8)	45 (53.6)	29 (34.5)	3 (3.6)	3 (3.6)	61 (72.6)
	과학	12 (18.2)	28 (42.4)	19 (28.8)	3 (4.5)	4 (6.1)	45 (68.2)
	사회	5 (5.0)	46 (46.0)	39 (39.0)	2 (2.0)	8 (8.0)	63 (63.0)
	예·체능	8 (15.1)	17 (32.1)	19 (35.8)	4 (7.5)	5 (9.4)	33 (62.3)
	실업	15 (8.5)	79 (44.9)	65 (36.9)	8 (4.5)	9 (5.1)	113 (64.2)
학년 수업 회수의 별	4회 이상	17 (14.7)	50 (43.1)	38 (32.8)	4 (3.4)	7 (6.0)	76 (65.5)
	3회	14 (13.0)	44 (40.7)	45 (41.7)	5 (4.6)		72 (66.7)
	2회	19 (12.6)	69 (45.7)	50 (33.1)	8 (5.3)	5 (3.3)	101 (66.9)
	1회	25 (9.8)	115 (45.3)	94 (37.0)	6 (2.4)	14 (5.5)	163 (64.2)
	없음	33 (10.1)	148 (45.1)	113 (34.5)	10 (3.0)	24 (7.3)	218 (66.5)
의사 능력 구분 별	능숙	3 (7.1)	19 (45.2)	16 (38.1)	2 (4.8)	2 (4.8)	30 (71.4)
	의사소통가능	27 (14.1)	78 (40.6)	75 (39.1)	5 (2.6)	7 (3.6)	124 (64.6)
	미숙	63 (10.5)	280 (46.7)	204 (34.1)	22 (3.7)	30 (5.0)	397 (66.3)
	불능	15 (12.1)	49 (39.5)	45 (36.3)	4 (3.2)	11 (8.9)	79 (63.7)
합계		108 (11.3)	426 (44.5)	340 (35.5)	33 (3.4)	50 (5.2)	630 (65.8)

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긍정적 영향

교육특례가 「특별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첫째, 국제자유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실시, 둘째,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의 유입, 셋째, 교육규제지역을 만들어 교육의 경쟁을 높이고, 넷째, 제주지역이 국제화되는 데 따른 제주도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 교육환경으로 메리트를 주고, 마지막 다섯째로 외국으로 유학 가는 자녀들의 교육을 국내에서 소화하자는 취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³⁴⁾

다분히 교육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특별법」의 교육 특례 조항들이 과연 애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시장이 개방(외국인 학교 설립, 외국인 교사 채용 자율화, 외국대학 분교 설치 허용 등) 되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 가지만 고르면?”(복수 응답)이라는 질문을 제시하여 그 응답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애초의 외국인 유입이나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보다는 다른 측면을 중시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38.2%), “외국인 투자 확대”(20.7%), “교육환경 개선”(17.8%), “지역 인재 육성”(16.4%), “도외 학생 유치”(6.9%)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내 초·중등 교사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 특례 조항에서의 외국인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장 개방을 제주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0> 참조)

경제활동의 세계화, 정보기술의 출현 등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식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개별 경제 주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인적·지적 경쟁력 요소가 매우 강조되며, 더욱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34) 김창희(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선점·차별화가 가능한가?”, 제주발전포럼 긴급좌담 회자료, p.10.

성공적 추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제주의 경우 인적·지적 경쟁력의 확보 및 향상은 제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³⁵⁾

우선 인적자산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로의 추진을 포함하여 제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현장의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즉 ‘제주형 인적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외국의 기관에 위탁교육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제주의 실정에 적합한 협력형 국제교육을 통한 제주형 교육체제의 도입과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 지역 내의 인적자원의 육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적자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두뇌유출이 매우 심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만 외부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도의 인적네트워크의 구성·활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프로그램의 개발’, ‘평생학습기회의 확대’ 등의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2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긍정적 영향

구분		지역인재육성	외국인 투자확대	교육환경개선	다양한교육 기회확대	도의 학생 유치	합계
성별	남	57 (12.8)	102 (22.9)	84 (18.8)	170 (38.1)	33 (7.4)	288 (64.6)
	여	105 (19.4)	102 (18.9)	92 (17.0)	207 (38.3)	35 (6.5)	337 (62.3)
연령별	20대	35 (20.7)	27 (16.0)	29 (17.2)	62 (36.7)	16 (9.5)	109 (64.5)
	30대	36 (18.4)	40 (20.4)	30 (15.3)	77 (39.3)	13 (6.6)	119 (60.7)
	40대	75 (15.3)	106 (21.6)	92 (18.7)	187 (38.1)	31 (6.3)	311 (63.3)
	50대 이상	16 (12.2)	31 (23.7)	25 (19.1)	51 (38.9)	8 (6.1)	86 (65.6)

35) 이경주(2002), “제주의 인적·지적 경쟁력 현황과 향상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제4호, p.8.

구분		지역인재육성	외국인 투자확대	교육환경개선	다양한교육 기회확대	도의 학생 유치	합계
학교급 별	초등학교	55 (21.0)	43 (16.4)	42 (16.0)	110 (42.0)	12 (4.6)	172 (65.6)
	중학교	32 (16.8)	38 (20.0)	34 (17.9)	75 (39.5)	11 (5.8)	119 (62.6)
	고등학교	75 (14.0)	123 (23.0)	100 (18.7)	192 (35.9)	45 (8.4)	334 (62.4)
전공과 목별	국어	20 (16.8)	23 (19.3)	22 (18.5)	46 (38.7)	8 (6.7)	73 (61.3)
	외국어	26 (23.2)	30 (26.8)	20 (17.9)	32 (28.6)	4 (3.6)	72 (64.3)
	수학	10 (11.4)	21 (23.9)	12 (13.6)	39 (44.3)	6 (6.8)	59 (67.0)
	과학	7 (10.6)	9 (13.6)	12 (18.2)	28 (42.4)	10 (15.2)	44 (66.7)
	사회	14 (13.6)	20 (19.4)	21 (20.4)	46 (44.7)	2 (1.9)	62 (60.2)
	예·체능	7 (13.2)	7 (13.2)	12 (22.6)	23 (43.4)	4 (7.5)	34 (64.2)
	실업	25 (13.1)	51 (26.7)	36 (18.8)	57 (29.8)	22 (11.5)	113 (59.2)
행위빈도 별	4회 이상	18 (14.8)	27 (22.1)	20 (16.4)	51 (41.8)	6 (4.9)	76 (62.3)
	3회	21 (19.1)	25 (22.7)	19 (17.3)	42 (38.2)	3 (2.7)	71 (64.5)
	2회	20 (13.2)	35 (23.0)	29 (19.1)	54 (35.5)	14 (9.2)	98 (64.5)
	1회	45 (17.0)	53 (20.0)	53 (20.0)	94 (35.5)	20 (7.5)	163 (61.5)
	없음	58 (17.2)	64 (18.9)	55 (16.3)	136 (40.2)	25 (7.4)	217 (64.2)
외국어 능력 별	능숙	7 (15.9)	12 (27.3)	8 (18.2)	15 (34.1)	2 (4.5)	30 (68.2)
	의사소통가능	46 (23.1)	44 (22.1)	29 (14.6)	73 (36.7)	7 (3.5)	126 (63.3)
	미숙	94 (15.0)	130 (20.7)	114 (18.2)	240 (38.2)	50 (8.0)	395 (62.9)
	불능	15 (12.9)	18 (15.5)	25 (21.6)	49 (42.2)	9 (7.8)	74 (63.8)
합계		162 (16.4)	204 (20.7)	176 (17.8)	377 (38.2)	68 (6.9)	625 (63.3)

5)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 학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의하면, ‘교육 및 인재육성부문의 사업계획’의 외국어

교육 및 연수 강화 방안 중, 외국어 학교 설립 및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제 완화 방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제주국제 중·고등학교 설립, 외국어 영재학교로서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조기에 설립함.
-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학교의 자율권 범위를 경제구역수준으로 확대 추진함.
-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입학자격, 교과과정, 교원자격,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특례를 도입함.

이를 놓고 볼 때, 교육 시장 개방과 맞물려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제한의 완화 내지 폐지는 제주도 초·중등 교육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요 여러 교육 주체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학교(유,초,중,고)가 설립되었을 때, 내국인 입학 자격 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 보았다. <표-21>에서 보듯이, 이에 대하여 성별, 연령대별, 전공 과목별, 해외 여행 경험 빈도별, 외국어구사 능력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급별 응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p < .05$, $\chi^2 = 21.59$) 전체적으로 반대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찬성”(37.0%), “반대”(32.4%), “적극 반대”(13.7%), “적극 찬성”(8.1%), “모름”(9.2%)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들은 “반대”(40.3%), “찬성”(33.9%), “적극 반대”(13.7%), “모름”(8.9%), “적극 찬성”(3.2%) 순으로 응답을 보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들은 “찬성”(40.6%), “반대”(38.2%), “적극 반대”(12.8%), “적극 찬성”(6.6%), “모름”(1.8%)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3년에 발표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조사에서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전철폐에 관해서는, 도민의 43.9%(점유율 60.4%)가 찬성, 반대는 28.8%(점유율 39.6%)인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

고 있으나,³⁶⁾ 본 연구의 전체적 응답에서의 찬성(44.6%), 반대(50.1%), 모름(5.2%)의 비율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폐자에 대한 찬·반 입장

구분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모름	합계	χ^2	df	p
성별	남	23 (7.9)	115 (39.4)	103 (35.3)	42 (14.4)	9 (3.1)	292 (100.0)	8.08	4	.089
	여	17 (5.0)	127 (37.4)	131 (38.5)	41 (12.1)	24 (7.1)	340 (100.0)			
연령	20대	5 (4.5)	38 (34.2)	45 (40.5)	15 (13.5)	8 (7.2)	111 (100.0)	10.20	12	.599
	30대	6 (5.0)	41 (34.5)	47 (39.5)	16 (13.4)	9 (7.6)	119 (100.0)			
	40대	21 (6.7)	122 (39.0)	113 (36.1)	44 (14.1)	13 (4.2)	313 (100.0)			
	50대 이상	8 (9.0)	41 (46.1)	29 (32.6)	8 (9.0)	3 (3.4)	89 (100.0)			
학교	초등학교	14 (8.1)	64 (37.0)	56 (32.4)	23 (13.3)	16 (9.2)	173 (100.0)	21.59	8	.006
	중학교	4 (3.2)	42 (33.9)	50 (40.3)	17 (13.7)	11 (8.9)	124 (100.0)			
	고등학교	22 (6.6)	136 (40.6)	128 (38.2)	43 (12.8)	6 (1.8)	335 (100.0)			
전공	국어	3 (4.0)	19 (25.3)	34 (45.3)	14 (18.7)	5 (6.7)	75 (100.0)	25.26	24	.392
	외국어	6 (8.1)	33 (44.6)	25 (33.8)	7 (9.5)	3 (4.1)	74 (100.0)			
	수학	1 (1.6)	33 (54.1)	20 (32.8)	6 (9.8)	1 (1.6)	61 (100.0)			
	과학	4 (8.9)	13 (28.9)	20 (44.4)	6 (13.3)	2 (4.4)	45 (100.0)			
	사회	5 (8.2)	22 (36.1)	21 (34.4)	11 (18.0)	2 (3.3)	61 (100.0)			
	예·체능	2 (5.9)	16 (47.1)	11 (32.4)	4 (11.8)	1 (2.9)	34 (100.0)			
빈번한 여행	4회 이상	5 (6.5)	33 (42.9)	23 (29.9)	11 (14.3)	5 (6.5)	77 (100.0)	9.18	16	.906
	3회	6 (8.3)	31 (43.1)	21 (29.2)	9 (12.5)	5 (6.9)	72 (100.0)			
	2회	6 (5.9)	38 (37.6)	36 (35.6)	14 (13.9)	7 (6.9)	101 (100.0)			
	1회	11 (6.7)	64 (39.0)	62 (37.8)	22 (13.4)	5 (3.0)	164 (100.0)			
	없음	12 (5.5)	76 (34.9)	92 (42.2)	27 (12.4)	11 (5.0)	218 (100.0)			

36) 제주발전연구원(2003), "제주도 주요정책 도민의견조사" p.5.

구분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적극반대	모름	합계	χ^2	df	p
외국 언어 능력 별	능숙	3 (9.7)	12 (38.7)	13 (41.9)	1 (3.2)	2 (6.5)	31 (100.0)	20.3 3	12	.061
	의사소통가능	7 (5.5)	52 (40.9)	42 (33.1)	18 (14.2)	8 (6.3)	127 (100.0)			
	미숙	21 (5.3)	161 (40.8)	144 (36.5)	48 (12.2)	21 (5.3)	395 (100.0)			
	불능	9 (11.4)	17 (21.5)	35 (44.3)	16 (20.3)	2 (2.5)	79 (100.0)			
합계		40 (6.3)	242 (38.3)	234 (37.0)	83 (13.1)	33 (5.2)	632 (100.0)			

6)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제한 폐지 시, 자신의 자녀의 입학 허용 여부와 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내국인에게도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고 했을 때, 만약 선생님 자녀의 경우라면 외국인학교 진학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가장 현실적인 입장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내국인 입학 자격 제한 폐지의 문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과 그 이유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우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입학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별, 전공 과목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대별, 학교 급별, 해외여행의 빈도나 외국어 구사 능력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22> 참조)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20대와 30대에서는 “보낼 의향이 있다”와 “보낼 의향이 없다”에 대하여 반반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40대에서는 “보낼 의향이 없다”(54.9%)가 “보낼 의향이 있다”(45.1%)보다 약간 우세를 보이고, 50대에서는 오히려 “보낼 의향이 있다”(65.6%)가 “보낼 의향이 없다”(34.4%)보다 많게 응답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chi^2 = 11.75$)

학교급별로는 “보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초등 교사(60.0%), 고등학교 교사(47.5%), 중학교 교사(4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11.17$)

해외여행 유무에 따른 응답은 해외 여행 경험이 전무한 교사들만이 “보낼 의향이 없다”에 61.6%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보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21.79$) 그리고 외국어 구사 능력별에서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능숙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사들이 “보낼 의향이 있다”에 높게 응답하였고, 반대로 미숙하거나 불능인 교사들은 “보낼 의향이 없다”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p < .05$, $\chi^2 = 11.43$)

이러한 응답 결과를 놓고 본다면,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보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보낼 의향이 높고, 해외 경험이 많으며,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수록 외국인 학교에 진학시킬 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에 진학시킬 의향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남녀 교사별과 연령대별, 학교급별, 전공과목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표-22~1> 참조)

남녀별로는 남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59.6%), “본인이 원하기 때문”(19.9%), “국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13.0%), “기타(7.5%)의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여교사의 경우는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61.6%), “기타”(20.8%), “본인이 원하기 때문”(20.0%), “국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1.9%)의 순으로 응답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p < .05$, $\chi^2 = 23.08$)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 “기타”, “본인이 원하기 때문”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40대와 50대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 “본인이 원하기 때문”, “국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순으로 응답을 보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chi^2 = 21.6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64.6%), “기타”(21.2%), “본인이 원하기 때문”(14.1%) 순으로 응답을 보이는데 비하여, 중학교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58.0%), “본인이 원하기 때문”(24.0%), “기타”(16.0%), “국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2.0%), 고등학교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59.0%), “본인이 원하기 때문”(17.9%), “국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13.5%), “기타”(9.6%) 순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 < .05$, $\chi^2 = 25.44$)

전공과목 교사별 통계에서는 실업 교과를 제외한 전 교과 교사들이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이거나 “본인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1, 2순위로 응답을 보이나, 실업 교과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이어, “국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을 그 이유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맞물려 국내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도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은 여교사보다 남교사, 50대 이상의 연령대의 교사, 고등학교 교사, 실업과목 교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학 기간 동안에 ‘외국어 습득’을 위하여 등의 기타 이유를 꼽고 있음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자신의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진학시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을 보이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남녀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chi^2 = 8.17$) 남교사들은 “정체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63.4%), “경제적 부담 때문”(19.4%), “차라리 유학이 더 낫다는 생각 때문”(9.7%), “기타”(7.5%)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여교사들은 “정체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75.8%), “차라리 유학이 더 낫다는 생각 때문”(9.9%), “경제적 부담 때문”(8.7%), “기타”(5.6%)의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다.(<표-22~2> 참조) 이는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욕구는 남녀를 막론하고 강하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남교사 보다는 여교사가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은 여교사 보다 남교사가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 시, 자신의 자녀의 입학 허용 여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χ^2	df	p
성별	남	149 (50.9)	144 (49.1)	293 (100.0)	.30	1	.584
	여	164 (48.7)	173 (51.3)	337 (100.0)			
연령별	20대	52 (50.0)	52 (50.0)	104 (100.0)	11.75	3	.008
	30대	60 (49.6)	61 (50.4)	121 (100.0)			
	40대	142 (45.1)	173 (54.9)	315 (100.0)			
	50대 이상	59 (65.6)	31 (34.4)	90 (100.0)			
학교 급별	초등학교	102 (60.0)	68 (40.0)	170 (100.0)	11.17	2	.004
	중학교	52 (41.6)	73 (58.4)	125 (100.0)			
	고등학교	159 (47.5)	176 (52.5)	335 (100.0)			

구분		있다	없다	합계	χ^2	df	p
전공 과목별	국어	29 (38.2)	47 (61.8)	76 (100.0)	9.77	6	.135
	외국어	42 (57.5)	31 (42.5)	73 (100.0)			
	수학	34 (56.7)	26 (43.3)	60 (100.0)			
	과학	18 (40.0)	27 (60.0)	45 (100.0)			
	사회	27 (41.5)	38 (58.5)	65 (100.0)			
	예·체능	15 (45.5)	18 (54.5)	33 (100.0)			
	실업	50 (44.6)	62 (55.4)	112 (100.0)			
해외 빈도별	4회 이상	50 (65.8)	26 (34.2)	76 (100.0)	21.79	4	.000
	3회	36 (51.4)	34 (48.6)	70 (100.0)			
	2회	59 (57.8)	43 (42.2)	102 (100.0)			
	1회	85 (51.2)	81 (48.8)	166 (100.0)			
	없음	83 (38.4)	133 (61.6)	216 (100.0)			
외국 언어 능력 별	능숙	19 (61.3)	12 (38.7)	31 (100.0)	11.43	3	.010
	의사소통가능	75 (60.0)	50 (40.0)	125 (100.0)			
	미숙	188 (47.7)	206 (52.3)	394 (100.0)			
	불능	31 (38.8)	49 (61.3)	80 (100.0)			
합계		313 (49.7)	317 (50.3)	630 (100.0)			

<표-22~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 시, 자신의 자녀의 입학 허용 이유

구분		본인이 원해서	질 높은 교육을위해	국내 공교육불신	기타	합계	χ^2	df	p
성별	남	29 (19.9)	87 (59.6)	19 (13.0)	11 (7.5)	146 (100.0)	23.08	3	.000
	여	25 (15.7)	98 (61.6)	3 (1.9)	33 (20.8)	159 (100.0)			

구분		본인이 원해서	질 높은 교육을위해	국내 공교육불신	기타	합계	χ^2	df	p
연령	20대	10 (20.0)	22 (44.0)	3 (6.0)	15 (30.0)	50 (100.0)	21.61	9	.010
	30대	9 (16.4)	34 (61.8)	1 (1.8)	11 (20.0)	55 (100.0)			
	40대	27 (19.1)	90 (63.8)	11 (7.8)	13 (9.2)	141 (100.0)			
	50대 이상	8 (13.6)	39 (66.1)	7 (11.9)	5 (8.5)	59 (100.0)			
학교별	초등학교	14 (14.1)	64 (64.6)		21 (21.2)	99 (100.0)	25.44	6	.000
	중학교	12 (24.0)	29 (58.0)	1 (2.0)	8 (16.0)	50 (100.0)			
	고등학교	28 (17.9)	92 (59.0)	21 (13.5)	15 (9.6)	156 (100.0)			
전과목별	국어	10 (35.7)	13 (46.4)	3 (10.7)	2 (7.1)	28 (100.0)	32.57	18	.019
	외국어	9 (22.0)	28 (68.3)	2 (4.9)	2 (4.9)	41 (100.0)			
	수학	3 (8.8)	27 (79.4)	2 (5.9)	2 (5.9)	34 (100.0)			
	과학	4 (23.5)	9 (52.9)	1 (5.9)	3 (17.6)	17 (100.0)			
	사회	4 (15.4)	16 (61.5)	1 (3.8)	5 (19.2)	26 (100.0)			
	예·체능	3 (20.0)	9 (60.0)	1 (6.7)	2 (13.3)	15 (100.0)			
	실업	7 (14.3)	21 (42.9)	12 (24.5)	9 (18.4)	49 (100.0)			
해외빈도	4회 이상	9 (18.0)	34 (68.0)	3 (6.0)	4 (8.0)	50 (100.0)	20.77	12	.054
	3회	1 (2.9)	23 (65.7)	4 (11.4)	7 (20.0)	35 (100.0)			
	2회	6 (10.3)	38 (65.5)	5 (8.6)	9 (15.5)	58 (100.0)			
	1회	21 (25.3)	48 (57.8)	7 (8.4)	7 (8.4)	83 (100.0)			
	없음	17 (21.5)	42 (53.2)	3 (3.8)	17 (21.5)	79 (100.0)			
국내사력별	능숙	2 (10.5)	13 (68.4)	2 (10.5)	2 (10.5)	19 (100.0)	3.18	9	.957
	의사소통가능	12 (16.7)	43 (59.7)	5 (6.9)	12 (16.7)	72 (100.0)			
	미숙	34 (18.6)	111 (60.7)	14 (7.7)	24 (13.1)	183 (100.0)			
	불능	6 (19.4)	18 (58.1)	1 (3.2)	6 (19.4)	31 (100.0)			
합계		54 (17.7)	185 (60.7)	22 (7.2)	44 (14.4)	305 (100.0)			

<표 22~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폐지 시, 자신의 자녀의 입학 불허 이유

구분		경제적 부담	정체성 있는 교육	유학이 더 낫다는 생각	기타	합계	r ²	df	p
성별	남	26 (19.4)	85 (63.4)	13 (9.7)	10 (7.5)	134 (100.0)	8.17	3	.043
	여	14 (8.7)	122 (75.8)	16 (9.9)	9 (5.6)	161 (100.0)			
연령별	20대	1 (2.0)	43 (86.0)	4 (8.0)	2 (4.0)	50 (100.0)	16.06	9	.066
	30대	8 (14.5)	39 (70.9)	6 (10.9)	2 (3.6)	55 (100.0)			
	40대	23 (14.4)	110 (68.8)	16 (10.0)	11 (6.9)	160 (100.0)			
	50대 이상	8 (26.7)	15 (50.0)	3 (10.0)	4 (13.3)	30 (100.0)			
학교별	초등학교	9 (14.5)	43 (69.4)	5 (8.1)	5 (8.1)	62 (100.0)	5.04	6	.538
	중학교	6 (8.8)	49 (72.1)	6 (8.8)	7 (10.3)	68 (100.0)			
	고등학교	25 (15.2)	115 (69.7)	18 (10.9)	7 (4.2)	165 (100.0)			
전과목별	국어	3 (7.0)	33 (76.7)	3 (7.0)	4 (9.3)	43 (100.0)	25.88	18	.103
	외국어	3 (10.3)	22 (75.9)	2 (6.9)	2 (6.9)	29 (100.0)			
	수학	3 (12.0)	16 (64.0)	4 (16.0)	2 (8.0)	25 (100.0)			
	과학	2 (7.4)	18 (66.7)	7 (25.9)		27 (100.0)			
	사회	3 (8.6)	27 (77.1)	1 (2.9)	4 (11.4)	35 (100.0)			
	예·체능	5 (29.4)	10 (58.8)	2 (11.8)		17 (100.0)			
	실업	12 (21.1)	38 (66.7)	5 (8.8)	2 (3.5)	57 (100.0)			
해외빈도별	4회 이상	4 (17.4)	17 (73.9)	1 (4.3)	1 (4.3)	23 (100.0)	10.57	12	.566
	3회	3 (9.4)	21 (65.6)	3 (9.4)	5 (15.6)	32 (100.0)			
	2회	5 (12.5)	25 (62.5)	6 (15.0)	4 (10.0)	40 (100.0)			
	1회	9 (11.7)	58 (75.3)	6 (7.8)	4 (5.2)	77 (100.0)			
	없음	19 (15.4)	86 (69.9)	13 (10.6)	5 (4.1)	123 (100.0)			
외사파별	능숙		8 (66.7)	3 (25.0)	1 (8.3)	12 (100.0)	9.79	9	.368
	의사소통가능	5 (10.6)	38 (80.9)	3 (6.4)	1 (2.1)	47 (100.0)			
	미숙	27 (14.1)	134 (69.8)	17 (8.9)	14 (7.3)	192 (100.0)			
	불능	8 (18.2)	27 (61.4)	6 (13.6)	3 (6.8)	44 (100.0)			
합계		40 (13.6)	207 (70.2)	29 (9.8)	19 (6.4)	295 (100.0)			

7)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가르쳤던 내용 영역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국가적 차원이든, 지역 사회적 차원이든 가시적 성과와 업적을 이루고자 할 때, 교육의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가장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인프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나 목적과 목표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을 양성하여 자생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중등 현장 교사들이 현재의 이러한 시대적 변화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 모색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 영역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내용 영역과 관련된 내용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연령대별을 제외하고는 성별, 학교급별, 전공과목별, 해외 여행 경험과 외국어 구사 능력별 등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23> 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남교사는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41.8%), “정체성<전통문화>교육”(27.5%), “외국어교육”(14.8%), “직업·기능교육”(8.2%) 등의 순으로 비중 있게 가르쳐왔다고 응답했는데 비해, 여교사는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42.5%), “외국어교육”(24.1%), “정체성<전통문화>교육”(20.1%), “직업·기능교육”(5.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chi^2=11.28$).

학교급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53.2%), “정체성<전통문화>교육”(19.3%), “외국어교육”(17.4%), “민주시민, 통일교육”(5.5%)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중학교 교사들은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34.4%), “정체성<전통문화>교육”(26.2%), “외국어교육”(21.3%), “민주시민·통일교육”(6.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인 경우는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38.2%), “정체성<전통문화>

교육”(25.8%), “외국어교육”(19.9%), “직업·기능교육”(9.7%) 등의 응답을 보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chi^2 = 22.77$)

전공과목별로는 대체로 자기 전공과목과 관련된 내용 영역이나 그와 유사한 영역 내용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 교사인 경우는 정체성교육을, 외국어 교과의 경우는 외국어 교육을 사회 교과 교사인 경우는 세계시민 교육을 제1 순위로 응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해외여행 경험의 빈도별로는 해외 여행 경험이 많은 경우(3,4회 이상)는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과 “외국어교육”을 1,2 순위로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여행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우(1,2회)는 1순위 응답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에 이어 “정체성<전통문화>교육”을 2순위로 응답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어 구사 능력별인 경우도 외국어에 능통할수록 “외국어교육”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능숙 70.6%, 의사소통 가능 43.3%), 외국어 구사 능력이 불능인 경우는 “정체성<전통문화>교육”(41.9%)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chi^2 = 35.91$)

<표-2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가르쳤던 내용 영역

구분		외국어 교육	세계시 민교육	직업기 능교육	정보화 교육	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통일교육	합계	χ^2	df	p
성별	남	27 (14.8)	76 (41.8)	15 (8.2)	11 (6.0)	50 (27.5)	3 (1.6)	182 (100.0)	11.28	5	.046
	여	42 (24.1)	74 (42.5)	10 (5.7)	5 (2.9)	35 (20.1)	8 (4.6)	174 (100.0)			
연령 별	20대	14 (24.1)	28 (48.3)	3 (5.2)	5 (8.6)	8 (13.8)		58 (100.0)	19.24	15	.203
	30대	16 (24.2)	28 (42.4)	3 (4.5)	2 (3.0)	16 (24.2)	1 (1.5)	66 (100.0)			
	40대	30 (17.1)	71 (40.6)	14 (8.0)	8 (4.6)	47 (26.9)	5 (2.9)	175 (100.0)			
	50대 이상	9 (15.8)	23 (40.4)	5 (8.8)	1 (1.8)	14 (24.6)	5 (8.8)	57 (100.0)			

구분		외국어 교육	세계시 민교육	직업기 능교육	정보화 교육	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통일교육	합계	χ^2	df	p
학교 급	초등학교	19 (17.4)	58 (53.2)	2 (1.8)	3 (2.8)	21 (19.3)	6 (5.5)	109 (100.0)	22.77	10	.012
	중학교	13 (21.3)	21 (34.4)	5 (8.2)	2 (3.3)	16 (26.2)	4 (6.6)	61 (100.0)			
	고등학교	37 (19.9)	71 (38.2)	18 (9.7)	11 (5.9)	48 (25.8)	1 (.5)	186 (100.0)			
전공 과별	국어	2 (6.1)	14 (42.4)	1 (3.0)	1 (3.0)	15 (45.5)		33 (100.0)	178.1 0	30	.000
	외국어	39 (76.5)	8 (15.7)	1 (2.0)		3 (5.9)		51 (100.0)			
	수학	3 (11.5)	12 (46.2)	2 (7.7)	1 (3.8)	8 (30.8)		26 (100.0)			
	과학		6 (33.3)	2 (11.1)	2 (11.1)	6 (33.3)	2 (11.1)	18 (100.0)			
	사회	3 (7.5)	23 (57.5)	3 (7.5)		10 (25.0)	1 (2.5)	40 (100.0)			
	예·체능	1 (6.7)	5 (33.3)	1 (6.7)		6 (40.0)	2 (13.3)	15 (100.0)			
	실업	2 (3.0)	26 (39.4)	13 (19.7)	9 (13.6)	16 (24.2)		66 (100.0)	178.1 0	30	.000
해빈 도별	4회 이상	17 (34.7)	17 (34.7)		2 (4.1)	11 (22.4)	2 (4.1)	49 (100.0)	35.91	20	.016
	3회	14 (32.6)	19 (44.2)	3 (7.0)	1 (2.3)	6 (14.0)		43 (100.0)			
	2회	13 (20.0)	27 (41.5)	3 (4.6)		19 (29.2)	3 (4.6)	65 (100.0)			
	1회	13 (14.1)	42 (45.7)	11 (12.0)	5 (5.4)	20 (21.7)	1 (1.1)	92 (100.0)			
	없음	12 (11.2)	45 (42.1)	8 (7.5)	8 (7.5)	29 (27.1)	5 (4.7)	107 (100.0)			
외국 어사 력별	능숙	12 (70.6)	4 (23.5)			1 (5.9)		17 (100.0)	96.35	15	.000
	의사소통가능	39 (43.3)	33 (36.7)	3 (3.3)	2 (2.2)	13 (14.4)		90 (100.0)			
	미숙	18 (8.3)	100 (45.9)	21 (9.6)	12 (5.5)	58 (26.6)	9 (4.1)	218 (100.0)			
	불능		13 (41.9)	1 (3.2)	2 (6.5)	13 (41.9)	2 (6.5)	31 (100.0)			
합계		69 (19.4)	150 (42.1)	25 (7.0)	16 (4.5)	85 (23.9)	11 (3.1)	356 (100.0)			

8)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내용 영역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미래라면 학교교육은 이에 맞는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기초를 마련해주는 구조의 중심이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담보할 중요한 인프라이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03학년도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과제로 제시하여 각급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가 일선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영역을 두 가지만 고르면?”(복수 응답)이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는 “정보화 교육”(35.0%), “외국어 교육”(25.9%), “세계시민<국제이해> 교육”(16.2%), “정체성<전통문화> 교육”(9.7%), “민주시민·통일 교육”(9.1%), “직업·기능 교육”(4.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4> 참조)

이는 원윤수의 조사 결과³⁷⁾에서, 현행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이 학생들에게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은 전체 41.3%이며, 부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은 20.5%로 현행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뜻하고 있으나, 교직원과 학부모는 10%만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수는 전체 45.5%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현행 7차 교육과정이 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응답 결과는 교사 자신의 전공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37) 원윤수(2001), 앞의 논문, p.58.

가질 수도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본 조사에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직업·기능 교육”에 대하여 제주도나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나 분석 과정을 거쳐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제주교육은 국제화에 대비한 직업교육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며, 특히 지역 내 각급 학교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내 기술 수준 향상은 물론 각급 교육기관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³⁸⁾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제주교육의 추진방향³⁹⁾에서 각 과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중점 과제의 내용과도 비교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외국어 교육, 인성 교육, 세계이해 교육, 통일 대비 교육, 관광 교육, 환경 교육 등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각 과 부서별로 관련 정도에 따라 분담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제시하는 과제는 교육정보화과의 업무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관광 교육’ 단 하나의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와 직제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의 추진과 이에 따른 자료의 제작 보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일선 각급 학교의 1년간의 교육계획서가 당해 연도의 제주도교육청의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 작성되고 추진되고 있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직제와 전담 부서의 설치 운영은 물론 교사들의 참여 하에 자료 제작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38) 박상수(2002), 앞의 논문,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 제115호, p.31.

39) 제주도교육청(2003), “제주교육의 추진 방향, p.102.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모아진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제주 지역 사회의 특수한 실정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⁴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직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 교과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지역화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하겠다.

<표-24>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내용 영역

구분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 교육	직업기능 교육	정보화 교육	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통일교육	합계
성별	남	96 (21.8)	81 (18.4)	24 (5.5)	144 (32.7)	52 (11.8)	43 (9.8)	272 (61.8)
	여	153 (29.4)	75 (14.4)	16 (3.1)	192 (36.9)	41 (7.9)	44 (8.4)	314 (60.3)
연령별	20대	43 (25.9)	22 (13.3)	9 (5.4)	65 (39.2)	16 (9.6)	11 (6.6)	103 (62.0)
	30대	57 (31.3)	25 (13.7)	6 (3.3)	58 (31.9)	15 (8.2)	21 (11.5)	110 (60.4)
	40대	126 (26.2)	81 (16.8)	21 (4.4)	171 (35.6)	42 (8.7)	40 (8.3)	288 (59.9)
	50대 이상	23 (17.4)	28 (21.2)	4 (3.0)	42 (31.8)	20 (15.2)	15 (11.4)	85 (64.4)
학교급별	초등학교	62 (22.3)	55 (19.8)	4 (1.4)	85 (30.6)	35 (12.6)	37 (13.3)	167 (60.1)
	중학교	63 (31.0)	35 (17.2)	6 (3.0)	70 (34.5)	12 (5.9)	17 (8.4)	118 (58.1)
	고등학교	124 (25.8)	66 (13.8)	30 (6.3)	181 (37.7)	46 (9.6)	33 (6.9)	301 (62.7)
전문영역별	국어	39 (33.9)	15 (13.0)	3 (2.6)	37 (32.2)	8 (7.0)	13 (11.3)	66 (57.4)
	외국어	38 (33.9)	23 (20.5)	3 (2.7)	36 (32.1)	10 (8.9)	2 (1.8)	67 (59.8)
	수학	18 (22.8)	14 (17.7)	3 (3.8)	30 (38.0)	8 (10.1)	6 (7.6)	55 (69.6)
	과학	17 (26.2)	7 (10.8)	7 (10.8)	26 (40.0)	3 (4.6)	5 (7.7)	39 (60.0)
	사회	28 (31.8)	6 (6.8)	2 (2.3)	38 (43.2)	7 (8.0)	7 (8.0)	56 (63.6)
	예·체능	9 (17.6)	9 (17.6)	4 (7.8)	16 (31.4)	6 (11.8)	7 (13.7)	30 (58.8)
	실업	40 (22.5)	28 (15.7)	14 (7.9)	69 (38.8)	17 (9.6)	10 (5.6)	109 (61.2)

40) 인정옥(1988), “교육과정 지역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원, pp.16~20.

구분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 교육	직업기능 교육	정보화 교육	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	합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횟수	4회 이상	34 (27.0)	23 (18.3)	2 (1.6)	45 (35.7)	12 (9.5)	74 (58.7)
	3회	30 (28.8)	18 (17.3)	1 (1.0)	34 (32.7)	13 (12.5)	66 (63.5)
	2회	42 (27.3)	22 (14.3)	8 (5.2)	54 (35.1)	16 (10.4)	95 (61.7)
	1회	57 (22.1)	39 (15.1)	13 (5.0)	92 (35.7)	27 (10.5)	156 (60.5)
	없음	86 (27.0)	54 (16.9)	16 (5.0)	111 (34.8)	25 (7.8)	195 (61.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형	능숙	16 (32.7)	9 (18.4)	1 (2.0)	17 (34.7)	3 (6.1)	30 (61.2)
	의사소통가능	64 (31.7)	37 (18.3)	6 (3.0)	63 (31.2)	18 (8.9)	119 (58.9)
	미숙	145 (24.1)	96 (16.0)	30 (5.0)	209 (34.8)	64 (10.6)	374 (62.2)
	불능	24 (22.0)	14 (12.8)	3 (2.8)	47 (43.1)	8 (7.3)	63 (57.8)
합계	249 (25.9)	156 (16.2)	40 (4.2)	336 (35.0)	93 (9.7)	87 (9.1)	586 (61.0)



9)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도 전체를 21세기 동아시아의 관광·물류·금융의 중심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02년 4월 동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제주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앞으로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제주도는 21세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평화의 섬으로 세계 평화는 물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부문을 보면 국제화에 따른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자율권 확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방송국 개국, 교육정보화 기반 확충 및 활용, 외국어교육의 강화와 기반 마련, 국제이해교육의 진흥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늘 푸른 제주 가꾸기 교육, 풍요로운 제주를 지향하는 환경·관광교육,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전통문화 교육 등에 교육적 역량을 쏟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교육제주’에서 특집으로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전통문화 교육, 국제이해 교육,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각계의 전문가, 교사가 참여하여 그 활성화 방안과 실제의 교육 실천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왔던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교육의 총본산인 제주도교육청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를 두 가지만 고르면?” 라는 제시하였다.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 해석을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시설 확충”(27.5%),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26.5%), “교원연수의 강화”(26.4%), “전담 부서의 설치 운영”(12.6%), “시범학교 운영”(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5> 참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종합계획」에 나타난 주민 설문 조사 결과⁴¹⁾에도 거주 지역에서 자녀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열악’ 35.8%, ‘학생수 감소’ 26.8%, ‘자녀의 타지 학교로의 통학’ 14.0%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초·중등교육 현장의 최첨병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교사들의 응답이 교육시설 확충,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교원연수의 강화 등의 문제에 거의 균등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러한 내용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

41) 제주도(2003), 앞의 책, p.50

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받침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 어떤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 교육감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는 것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제주의 교육환경 개선에 일대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면서, 교육계 주변에서 공교육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데, 특별 교부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교육의 내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게 되고, 그 토대 위에 외국어교육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반드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지 않고서도 공교육의 범주 속에서 외국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만 된다면 외국인학교 입학을 둘러싼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표-25>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

구분		교원연수 강화	시범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시설 확충	전담부서 운영설치	합계
성별	남	112 (24.6)	39 (8.6)	123 (27.0)	123 (27.0)	58 (12.7)	291 (64.0)
	여	155 (27.9)	31 (5.6)	145 (26.1)	155 (27.9)	69 (12.4)	335 (60.4)
연령	20대	48 (26.8)	11 (6.1)	57 (31.8)	44 (24.6)	19 (10.6)	110 (61.5)
	30대	57 (30.5)	16 (8.6)	43 (23.0)	44 (23.5)	27 (14.4)	115 (61.5)
	40대	120 (23.9)	27 (5.4)	136 (27.1)	153 (30.5)	66 (13.1)	310 (61.8)
	50대 이상	42 (29.6)	16 (11.3)	32 (22.5)	37 (26.1)	15 (10.6)	91 (64.1)

42) 김태혁(2002), “국제자유도시와 교육에 관한 단상”, 제주도교육청, 앞의 책, p.11.

구분		교원연수 강화	시범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시설 확충	전담부서 운영설치	합계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86 (31.5)	20 (7.3)	71 (26.0)	68 (24.9)	28 (10.3)	171 (62.6)
	중학교	49 (24.3)	11 (5.4)	47 (23.3)	67 (33.2)	28 (13.9)	121 (59.9)
	고등학교	132 (24.7)	39 (7.3)	150 (28.0)	143 (26.7)	71 (13.3)	334 (62.4)
전 과 목 별	국어	31 (25.2)	6 (4.9)	29 (23.6)	35 (28.5)	22 (17.9)	75 (61.0)
	외국어	40 (34.5)	5 (4.3)	32 (27.6)	23 (19.8)	16 (13.8)	70 (60.3)
	수학	28 (29.8)	6 (6.4)	23 (24.5)	31 (33.0)	6 (6.4)	61 (64.9)
	과학	14 (19.2)	6 (8.2)	20 (27.4)	22 (30.1)	11 (15.1)	44 (60.3)
	사회	23 (21.7)	3 (2.8)	32 (30.2)	37 (34.9)	11 (10.4)	65 (61.3)
	예·체능	8 (14.8)	4 (7.4)	16 (29.6)	16 (29.6)	10 (18.5)	34 (63.0)
	실업	41 (23.0)	21 (11.8)	46 (25.8)	46 (25.8)	24 (13.5)	110 (61.8)
핵 심 역 량 별	4회 이상	36 (30.0)	8 (6.7)	29 (24.2)	27 (22.5)	20 (16.7)	73 (60.8)
	3회	29 (25.0)	5 (4.3)	35 (30.2)	33 (28.4)	14 (12.1)	71 (61.2)
	2회	48 (30.0)	15 (9.4)	38 (23.8)	43 (26.9)	16 (10.0)	100 (62.5)
	1회	73 (27.3)	15 (5.6)	73 (27.3)	70 (26.2)	36 (13.5)	166 (62.2)
	없음	81 (23.3)	27 (7.8)	93 (26.8)	105 (30.3)	41 (11.8)	216 (62.2)
의 사 사 력 별	능숙	17 (34.0)	3 (6.0)	13 (26.0)	10 (20.0)	7 (14.0)	30 (60.0)
	의사소통가능	67 (33.0)	10 (4.9)	53 (26.1)	49 (24.1)	24 (11.8)	124 (61.1)
	미숙	153 (24.6)	50 (8.0)	164 (26.4)	177 (28.5)	78 (12.5)	394 (63.3)
	불능	30 (22.2)	7 (5.2)	38 (28.1)	42 (31.1)	18 (13.3)	78 (57.8)
합계		267 (26.4)	70 (6.9)	268 (26.5)	278 (27.5)	127 (12.6)	626 (62.0)

1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을 뜻한다. 좁은 뜻으로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따라 시간표를 정하고 일정한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활동의 조직을 가리킨다. 따라서서 각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과 실태를 반영한 지침을 만들고, 각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별 지침에 따라 그 학교의 실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각 지역과 학교,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7차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간은?” 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구안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여 응답을 받아 본 결과, 연령대별, 해외 여행 경험 및 외국어 구사 능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표-26> 참조)

그러나 남·녀 교사별 변인을 보면, 남교사들은 “재량활동시간”(50.0%), “계발활동시간”(18.5%), “교과활동시간”(15.8%), “자치활동시간”(11.0%), “특기적성시간”(4.8%)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비하여, 여교사들은 “재량활동시간”(66.5%), “자치활동시간”(10.4%), “교과활동시간”(10.1%), “계발활동시간”(9.5%), “특기적성시간”(3.6%)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chi^2 = 21.05$)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재량활동시간”이 78.5%의 응답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중학교 교사들 역시 “재량활동시간”이 71.2% 응답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 교사들은 “재량활동시간”(44.0%), “교과활동시간”(18.4%), “계발활동시간”(17.5%), “자치활동시간”(14.5%)의 응답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chi^2 = 72.78$)

전공과목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교과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재량활동시간”과 “계발활동시간”을 1, 2 순위로 꼽아 응답하고 있으나, 실업 교과와 예·체능 교과 교사들은 “교과활동시간” 2순위로 응답하는 것이 특이하다.($p < .05$, $\chi^2 = 40.34$)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면 중학교의 경우 연간 34시간,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2단위를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며, 학교별에 따라서는 계발활동시간, 특기적성시간, 교과활동시간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지침에⁴³⁾ 따르면 재량활동의 기본 방향에서 ‘재량활동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과 특성 및 교사·학생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한다.’는 내용과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화에 걸맞는 제주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구안하고, 이에 따르는 교수-학습 자료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개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제주 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에 대한 중요한 대부분의 권한을 제주도에 넘겨주어 제주도 교육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⁴⁴⁾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26>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구분		재량활동시간	자치활동시간	계발활동시간	특기적성시간	교과활동시간	합계	χ^2	df	p
성별	남	146 (50.0)	32 (11.0)	54 (18.5)	14 (4.8)	46 (15.8)	292 (100.0)	21.05	4	.000
	여	224 (66.5)	35 (10.4)	32 (9.5)	12 (3.6)	34 (10.1)	337 (100.0)			
연령별	20대	65 (59.1)	11 (10.0)	15 (13.6)	6 (5.5)	13 (11.8)	110 (100.0)	8.28	12	.763
	30대	73 (64.0)	13 (11.4)	8 (7.0)	4 (3.5)	16 (14.0)	114 (100.0)			

43) 제주도교육청(200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p.64.

44) 제주국제협의회 외(2003), 앞의 책, P.57.

구분		재량 활동시간	자치 활동시간	계발 활동시간	특기 적성 시간	교과 활동 시간	합계	χ^2	df	p
연령 별	40대	181 (57.6)	31 (9.9)	47 (15.0)	13 (4.1)	42 (13.4)	314 (100.0)	8.28	12	.763
	50대 이상	51 (56.0)	12 (13.2)	16 (17.6)	3 (3.3)	9 (9.9)	91 (100.0)			
학급 별	초등학교	135 (78.5)	8 (4.7)	11 (6.4)	7 (4.1)	11 (6.4)	172 (100.0)	72.7 8	8	.000
	중학교	89 (71.2)	11 (8.8)	17 (13.6)		8 (6.4)	125 (100.0)			
	고등학교	146 (44.0)	48 (14.5)	58 (17.5)	19 (5.7)	61 (18.4)	332 (100.0)			
전과 목별	국어	44 (58.7)	10 (13.3)	13 (17.3)	1 (1.3)	7 (9.3)	75 (100.0)	40.3 4	24	.020
	외국어	39 (55.7)	11 (15.7)	10 (14.3)	2 (2.9)	8 (11.4)	70 (100.0)			
	수학	33 (55.0)	10 (16.7)	11 (18.3)	2 (3.3)	4 (6.7)	60 (100.0)			
	과학	20 (44.4)	7 (15.6)	12 (26.7)	1 (2.2)	5 (11.1)	45 (100.0)			
	사회	42 (64.6)	6 (9.2)	7 (10.8)	3 (4.6)	7 (10.8)	65 (100.0)			
	예·체능	16 (47.1)	4 (11.8)	6 (17.6)	2 (5.9)	6 (17.6)	34 (100.0)			
	실업	43 (38.7)	11 (9.9)	17 (15.3)	8 (7.2)	32 (28.8)	111 (100.0)			
행위 빈도 별	4회 이상	45 (60.0)	10 (13.3)	11 (14.7)	1 (1.3)	8 (10.7)	75 (100.0)	17.1 6	16	.375
	3회	37 (52.9)	9 (12.9)	17 (24.3)	2 (2.9)	5 (7.1)	70 (100.0)			
	2회	60 (60.0)	11 (11.0)	10 (10.0)	4 (4.0)	15 (15.0)	100 (100.0)			
	1회	99 (59.3)	12 (7.2)	23 (13.8)	7 (4.2)	26 (15.6)	167 (100.0)			
	없음	129 (59.4)	25 (11.5)	25 (11.5)	12 (5.5)	26 (12.0)	217 (100.0)			
의사 능력 별	능숙	17 (54.8)	4 (12.9)	7 (22.6)		3 (9.7)	31 (100.0)	6.90	12	.864
	의사소통가능	71 (58.7)	13 (10.7)	17 (14.0)	6 (5.0)	14 (11.6)	121 (100.0)			
	미숙	234 (58.5)	42 (10.5)	50 (12.5)	17 (4.3)	57 (14.3)	400 (100.0)			
	불능	48 (62.3)	8 (10.4)	12 (15.6)	3 (3.9)	6 (7.8)	77 (100.0)			
합계		370 (58.8)	67 (10.7)	86 (13.7)	26 (4.1)	80 (12.7)	629 (100.0)			

IV. 결 론 : 요약 및 제언

세계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인류는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21C는 지식이 개인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기존 산업사회의 정부조직과 사회, 경제, 학교제도는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의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의 세계화, 정보기술의 출현 등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식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인적·지적 경쟁력 요소가 매우 강조된다. 더욱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제주의 경우 인적·지적 경쟁력의 확보 및 향상은 제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⁴⁵⁾.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진정 제주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로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전제 아래 제주의 학교교육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적 기반이라고 하겠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하기 위하여 인적·지적 경쟁력, 즉 인재 양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면, 그 중심에 초·중등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하겠다. 또한 제주의 초·중등교육이 성패는 학교 교육의 핵심적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인 열의에 달려있다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일반 사항과 여기에 포함되어

45) 이경주(2002), 앞의 논문, p.8.

있는 교육적 쟁점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주도내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과 관심 및 교육적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반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제주도내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내 초·중등교사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거의 대부분 매스컴을 통해서 얻고 있으며, 따라서 피상적이고 단편적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1차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유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넷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전통문화의 파괴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하여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섯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유망 산업분야는 관광·휴양 산업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섯째, 외국의 다른 국제자유도시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요인으로 청정자연 환경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차 제주도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교육적 쟁점과 과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제주도내 초·중등교사들의 인식과 관심, 태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 교육, 정체성 교육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계층간의 위화감과 공교육 위축을 꼽고 있는 반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를 꼽고 있다.

넷째,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자격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신의 자녀의 입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반의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입학 허용의 이유는 자녀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이유가 가장 많았고, 입학 불허의 이유는 정체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가르쳤던 것은 국제이해 교육 영역이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은 정보화 교육을 꼽았다.

여섯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연수의 확대,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 등에 대하여 제주도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곱째, 일선 학교의 대응 방안 차원에서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주도내 초·중등학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추진에 대한 교육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내 초·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반에 대해

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다양한 국내외 연수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 전통문화 및 정체성의 위기 극복 방안과 교육 시장 개방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방안과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주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자료 개발, 각종 교원연수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다섯째, 일선 초·중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시장 개방과 외국인 학교의 입학 자격 제한 폐지 등의 민감한 교육적 쟁점에 대한 보다 활발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교육 주체들 간의 발전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재 제주사회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를 살아야 할 사람들의 미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지나치게 낙관적 기대감에 젖어 성급하게 그 열매를 따려해서도 안 될 것이요, 지나치게 비관적 회의론에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할 일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진정 제주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로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전제 아래 제주의 교육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적 기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교육 주체의 각고의 노력과 애정 어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저서

- 제주국제협의회 외(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오름
- 강순원(200), 「평화·인권·교육」, 한울출판사.
- 김종수(1995),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 한울출판사.
- 이화수(1997), 「정보화시대 교육의 정책」, 대화출판사.
- 허경운(2003),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웁니다」, 대영인쇄사.
- 제주발전연구원(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어와 제주방언 보존방안 연구」, 선명인쇄사.



2. 논문

- 송상순(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 학교교육의 과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청류」.
- 박철홍(2003), “세계시민교육의 쟁점과 발전 방향”,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제주국제협의회 외 공편.
- 김부찬(1999),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 제 3호.
- 고부언(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배경과 전망”,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 제 115호.
- 김태보(1999),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지역 경제”,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제 5호.
- 박철수(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 제 115호.
- 정대연(200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 약탈성과 침략성”,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민토론회 자료.

강철준(1999), “21세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제적 의의와 추진방향”,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연구논총」.

김현돈(1999), “국제자유도시와 문화”,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제5호.

양영철(1999),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제 5호.

송재호(1997), “국제관광과 섬: 변화와 아이덴티티”,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 14집.

——(2001),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민 생존전략으로 타당한가“, 제주국제자유도시도민 토론회 자료.

전교조제주지부(2001),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 분석 자료.

김대유(2002), “외국인학교 개방정책, 그 실체와 오류”, 한국교육학회제주지회 외,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

강태중(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초·중등교육의 재구조화”, 2002년도 제주도의회 정책세미나 토론회자료.

김미정(2002), “외국 국제자유도시(싱가포르·홍콩)의 교육 실태”,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 제 115호.

박상수(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교육의 이슈”,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 제 115호.

강성균(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교육의 과제”,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 제 115호.

김항원(1990),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1), “세계화에 대비한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백록논총」, 제 3집.

강기춘(1999), “국제자유도시와 통상·금융”,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 연구소, 「제주리뷰」, 제5호.

이경원(1999), “지방자치와 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제 5호.

이용탁(2003), “지역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윤수(200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초·중등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민호(200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역기능 해소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2002봄호,

김창희(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선점·차별화가 가능한가?”, 제주발전포럼 긴급좌담회자료.

이경주(2002), “제주의 인적·지적 경쟁력 현황과 향상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제4호.

인정옥(1988), “교육과정 지역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학원.



3. 기타

제주도(200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0),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제주도교육청(2003), 「제주교육의 추진 방향」

------(200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00), 「21세기의 제주교육 기본구상」

------(1997), 「국제이해교육」

제주발전연구원(2003), “제주도 주요정책 도민의견조사”

교육부(2000),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안」

------(2000),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Study on consciousness about Education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Focusing on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Teachers-

Oh Seong-min

Che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Graduate School

specialized in national ethics

adviser Heo Jeong-Ho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promotion project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policy in national phase and simultaneously the great project that put up the future of Jeju people as security has been two years since it started.

The change in every parts such as society, economy, education, etc. has been inevitable as Jeju-do promote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especially educational correspondence is surely the most important part for Jeju to succeed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Education part should play the core role for each one of Jeju people to cope with the new change and environment essentially and actively , to achieve individual and social goal and to succeed in globalization without losing Jeju-do.

This study is about the basic consciousness , interest, educational tasks and rol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are charged with the Jeju's education focusing on general item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and educational issues included in it and followings are summaries of the results.

Firs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in Jeju-do are well aware of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rough mass media

Second, they are positive towar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itself expecting the local economy activated, but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breakdown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crisis of identity

Third, tourism and recreation industry are considered as the promising part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and they take pride in the clear natural environment and the geographical location as the center of the northeast Asia.

Fourth, provided the financial support by interim Government with Jeju people's opinion reflected, they expect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Jeju people in the future will be improved.

Fifth, above all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dentity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hould be emphasized.

Sixth, the basic position of agreement and opposition about opening of educational market is appeared fifty-fifty and it is possible to expend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but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side-effects such as the sense of incompatibility between the classes

Seventh opposition is predominant as of abolishment of the admission qualification limit of domestic people for foreigner's school followed by the opening of Educational market but they respond half-and-half for yes or no for their children's admission to the school

Eighth they think the active correspondence of Jeju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such as expansion of study and training opportunity for teachers is necessary and in some schools they consider that it is desirable to teach students the concerned contents through the discretion activities of the 7th curriculum.

※ This thesis is submitted to Che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Graduate School Committee in February 2004 as master's thesis in Pedagogy.

부 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한 초·중등교사의 의식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학생지도와 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선생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설문지는 최근에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 제주도민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과 관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학위 논문 작성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오 성 민 올림

♥ 다음 내용의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

<기초자료 관련 사항>

1. 성별; (1) 남 (2) 여
2. 연령별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3. 학교급별 ;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담당과목(전공과목) ; < >
5. 해외 여행이나 해외 연수 경험
(1) 4회 이상 (2) 3회 (3) 2회 (4) 1회 (5) 없음
6. 외국어 회화(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구사 능력
(1) 능숙 (2) 의사소통 가능 (3) 미숙 (4) 불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

1.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자세히 안다. (2) 대강 안다. (3) 들은 적은 있다. (4) 모른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매스컴(신문·TV) (2) 교내·외 연수 (3) 학교 비치 자료
 (4) 각종 단체 홍보 활동 (5) 동료집단
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1) 적극 찬성 (2) 찬성 (3) 반대 (4) 적극 반대 (4) 모름
4. < 3번 문항에 ‘적극 찬성 또는 찬성’ 하시는 분만 응답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찬성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고르면?
 (1) 지역경제 활성화 (2) 고용 창출 (3) 1차 산업의 성장 한계 극복
 (4) 경쟁력 있는 선진 문화 창조 (5) 세계 평화에 이바지
5. < 3번 문항에 ‘반대 또는 적극 반대’ 하시는 분만 응답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고르면?
 (1) 환경오염 (2) 전통문화 파괴 및 정체성의 위기 (3) 각종 범죄 및 치안 불안
 (4) 빈부격차 및 계층간의 위화감 (5) 부의 도외 유출
6.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를 두 가지만 고르면?
 (1) 농·어업 (2) 관광·휴양 (3) 첨단산업(정보통신, 생명과학) (4) 물류·교역·금융 (5) 교육
7.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오키나와 등의 기존 국제자유도시와 비교하여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 가지만 고르면?
 (1) 지리적 위치(동북아의 중심) (2) 청정자연환경 (3) 다양한 전통문화 자원
 (4) 교통·정보 인프라 (5) 정부의 의지
8.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만 고르면?
 (1) 도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2)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3) 외자 유치 방안
 (4) 지방정부의 의지 (5) 교육적 대처 방안 모색
9.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정착되었을 때,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아주 높아질 것이다. (2) 조금 높아질 것이다. (3) 변화가 없을 것이다.
 (4)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 (5) 아주 낮아질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서의 교육 관련 내용>

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을 두 가지만 고르면?
 (1) 외국어교육 (2)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 (3) 직업·기능교육 (4) 정보화교육
 (5) 정체성<전통문화>교육 (6) 민주시민, 통일교육
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교육시장 개방(외국인 학교 설립, 외국인 교사 채용 자율화, 외국대학 분교 설치 허용 등)에 대한 입장은?
 (1) 적극 찬성 (2) 찬성 (3) 반대 (4) 적극 반대 (5) 모름
3. 교육시장이 개방(외국인학교 설립, 외국인교사 채용 자율화, 외국대학 분교 설치 허용 등) 되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 가지만 고르면?
 (1) 교육비 증가 (2) 계층간 위화감 (3) 공교육 위축 (4) 학생수요 잠식 (5) 지역간 불균형
4. 교육시장이 개방(외국인 학교 설립, 외국인 교사 채용 자율화, 외국대학 분교 설치 허용 등) 되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 가지만 고르면?
 (1) 지역 인재 육성 (2) 외국인 투자 확대 (3) 교육환경 개선
 (4)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5) 도외 학생 유치
5. 외국인 학교(유,초,중,고)가 설립되었을 때, 내국인 입학 자격 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찬성 (2) 찬성 (3) 반대 (4) 적극 반대 (5) 모름
6.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내국인에게도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고 했을 때, 만약 선생님 자녀의 경우라면 외국인학교 진학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보낼 의향이 있다 (2) 보낼 의향이 없다
7. < 6번 문항에 ‘(1)보낼 의향이 있다’는 분만 응답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1) 본인이 원하기 때문 (2) 질 높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
 (3) 국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4) 기타()

8. < 6번 문항에 '(2)보낼 의향이 없다' 는 분만 응답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1) 경제적 부담 때문
- (2) 정체성 있는 교육 때문
- (3) 차라리 유학이 더 낫다는 생각 때문
- (4) 기타()

9.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영역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 (1) 외국어교육
- (2)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
- (3) 직업·기능교육
- (4) 정보화교육
- (5) 정체성<전통문화>교육
- (6) 민주시민, 통일교육

10.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있다고 여겨지는 영역을 두 가지만 고르면서?

- (1) 외국어교육
- (2) 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
- (3) 직업·기능교육
- (4) 정보화교육
- (5) 정체성<전통문화>교육
- (6) 민주시민, 통일교육

1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하여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를 두 가지만 고르면서?

- (1) 교원연수의 강화
- (2) 시범학교 운영
- (3)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 (4) 교육시설 확충
- (5) 전담 부서의 설치 운영

1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7차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간은?

- (1) 재량활동시간
- (2) 자치활동시간
- (3) 계발활동시간
- (4) 특기적성시간
- (5) 교과활동시간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